

The background of the cover is a sepia-toned photograph of a large Buddhist sculpture. It depicts a central figure, likely a Bodhisattva, standing and holding a lotus flower. To the left and right are smaller figures, possibly Arhats or monks, also in standing poses. The sculpture is set against a dark, textured backdrop.

충청남도문화

제15호



한국문화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이준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충남문화 가꾸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게 오는 추위라서 더욱 더 한기(寒氣)를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조각난 햇살까지도 그리워짐은 많은 이들이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따스한 온기로 얼어붙은 동토(凍土)를 녹여서 함께 추위를 이겨내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충남의 문화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는데 아직도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방안 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고 도는 시간 속에서 그 책임이 실종된지도 오래인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가 살아숨쉬는 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인데도 각 분야별 멘토들과 행정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지요. 문화가족 여러분의 정론(定論)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기에 이제 지성인들이 책임져야 할 미래(未來)만 있을 뿐입니다.

충남도내 문화가족 여러분!
창조적 사유(思惟)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아이템'과 조언으로 충남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문화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매력있는 짙은 색감으로 녹아들기를 바라며 다함께 발전된 충남문화 가꾸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 12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21세기 지식문화 강국을 열어가는 밑거름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가 숨쉬는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백제문화의 왕성한 창조력을 바탕으로 찬란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자랑했고, 이로 인해 가는 곳마다 이 땅을 지켜온 훌륭한 선현들의 정신이 뉘뉘히 흐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에 흐르고 있는 뿌리 깊은 지역문화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적 역량과 창의력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곳곳에 숨쉬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 증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고,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는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더욱 빛이 납니다.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더욱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신감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지식문화 강국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문화를 발간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문화 제15호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는 문화의 향기와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문화예술제 개최, 문화시설 현대화 사업,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읍면동 역사발굴사업,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충남문화 제15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12



유병기 충청남도문화재단장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낭만의 고장 '충남'

소중한 우리 문화를 도민에게 전해주는 「제 15호 충남문화」가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준호 道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문화 과수꾼 여러분!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드러커’는 “문화산업은 21세기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최후의 승부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면서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구조 속에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문화산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충남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낭만의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충남의 정취를 느끼고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문화의 발굴과 육성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고, 도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우리고장에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15호 충남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Contents



003	권두언	이준호(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004	축간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유병기(충청남도의회회장)
008	문화칼럼	류제협(논산문화원장)
007	충남의 인물	영화작가 임희재 /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 명창 이동백
013	충남의 민속	청양 정산 동화제 / 예산 대흥면 머슴제 / 충남의 집지킴 신
020	충남의 전설	남편을 그리다 돌이 된 할미바위 / 아야목
025	충남의 문화재	계룡산 증악단 /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 고산사
029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천안성환배축제 / 백전 민속문화제 / 보령 삼시도리 장고도 등바루놀이 돌방

036	충남의 문화사업
055	문화원 단신
058	2011년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060	2011년도 도내문화원 활동상황(가나다순)
061	공주문화원
065	금산문화원
069	논산문화원
073	당진문화원
077	대천문화원
081	부여문화원
084	서산문화원
088	서천문화원
090	성환문화원
093	연기문화원
099	예산문화원
103	온양문화원
105	천안시동남구문화원
108	청양문화원
113	태안문화원
117	홍성문화원
123	각 문화원 홈페이지 소개 및 문화원 현황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류제협 | 논산문화원장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수출을 시작하던 1960년대 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니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자축할 일이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니, 이런 때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정말 자랑스롭다. 1970 ~ 80년대 부산과 구미공업단지에 있는 섬유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나는 그 때 수출품의 선적 날짜를 맞추기 위해 햇불을 들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수출품 상자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자축하며 하루를 놀게 해주고 회사에서 주는 푸짐한 선물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때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리는 분명 더 잘 살게 됐고 더 풍요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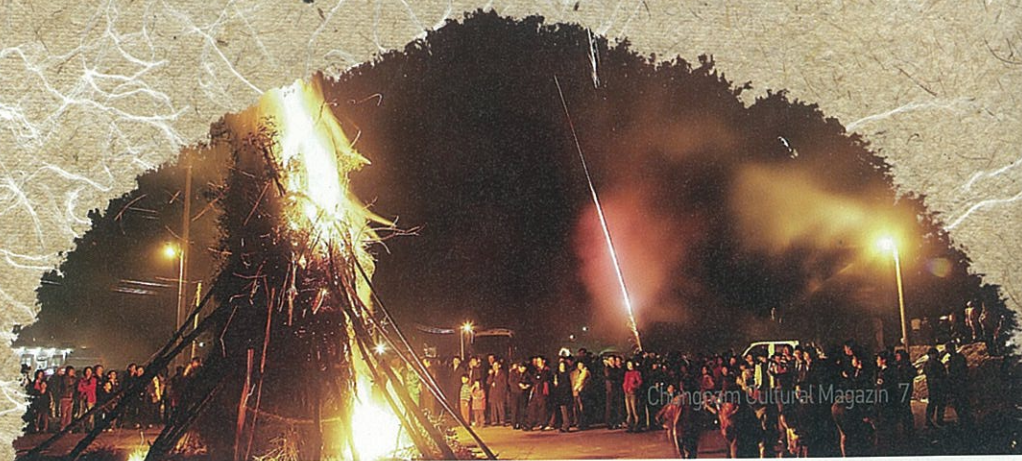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고 만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왜일까?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년층 이상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항상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놀면 안 되고 항상 부지런히 일해야 되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더라도 소비하면 안 되고 저축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나라의 산업자본으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쌀이 남아서 걱정이고 주5일 근무에 소비가 미덕이 된 오늘날의 형편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절을 살았었다.

나는 50대 중반이 된 10여 년 전 어느 날 문득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읽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이후 나는 안분지족 쪽에 무게를 두고 편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쉽지 않다. 내용은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땅에 욕심이 많은 파흠이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돌아오는 땅을 1천 루블의 값에 팔겠다는 대지주의 말에 따라 하루 종일 죽을힘을 다해 넓은 땅을 돌아왔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 출발점에 놓아두고 간 여우털모자 앞에 쓰러지면서 손을 뻗어 출발점을 짚어 그 큰 땅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파흠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다시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파흠을 묻는 데는 불과 1평의 땅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높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목적을 이루고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만끽하는 것도 인생을 사는 하나의 길이겠고, 또한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가하게 즐기며 사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다.



충남의 인물
충남의 민속
충남의 전설
충남의 문화재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영화작가 임희재

많은 작품들을 신상옥 감독과 함께 했는데 신상옥 감독은 임희재를 전속 작가로 무척이나 아꼈다고 한다.
1956년 잡지 <여성계> 사의 주간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극단 <산하>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무려 3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영화작가 임희재(任熙宰)는 금산 남일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일 농림학교를 거쳐 1939년 일본 니혼대학 법과를 중퇴하였다. 1944년 무렵에는 인쇄회사와 미곡창고회사에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1945년에는 해주에서 극단을 조직해 연극활동을 하였고, 월남하여 고향 금산에 돌아와 잠시 금산농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직생활을 하는 한편으로 극단을 운영하며 금산의 연극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던 중 좌익세력에 의해 납치를 당해 고초를 겪게 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임희재는 이때부터 신문사 기자생활을 하며 본격적인 글쓰기에 매달렸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막희곡 「기항지(寄港地)」가 당선되었으며 주로 희곡, 라디오의 드라마, 시나리오 등의 작업을 하였다. KBS라디오 드라마 「진주탑」은 임희재에게 작가로서의 발판을 확실히 만들어준 인기있었던 작품이다.

그 후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역을 넓히게 되는데, 1958년 김기영 감독 「황혼열차」로 지금은 쟁쟁한 배우가 된 김지미, 안성기와 같이 데뷔를 하게 된다. 이후 1961년 「마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연산군」, 1963년 「로맨스 그레이」, 「혈맥」, 1967년 「사격장의 아이들」 등 80여 편의 시나리오를 남겼다.

19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제1회 대중상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고 1964년 「혈맥」으로 같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TV드라마에서도 걸출한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동양방송의 「아씨」는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회자되는 작품이다. 임희재는 많은 작품들을 신상옥 감독과 함께 했는데 신상옥 감독은 임희재를 전속작가로 무척이나 아꼈다고 한다.

1956년 잡지 <여성계> 사의 주간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시나리오협회 간사, 극단 <산하>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무려 3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연극에서는 단막 「복날」이 1955년 공연되었고, 「고래」가 1958년, 장막 「꽃잎을 먹고사는 기관차」가 1956년에 각각 공연되었다. 1959년에는 현대문학사 신인상과 한국영화이사회 시나리오상을 수상하였다.

자료제공 : 금산문화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1821~1846

한국 천주교회의 수선탁덕(首先鐸德 : 첫 번째의 성직자라는 칭호)이란 사실 이외에 한국 최초의 근대 유학생이요, 한국인 최초의 나침반 사용자이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작성보다 16년이나 앞서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당시 프랑스 신부들에게 전달되었다

교명(敎名)은 앙드레(Andre),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 천주교 성인으로 충청도 면천군 솔피(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김해이고, 처음 이름은 재복(再福), 보명(譜名)은 지식(芝植)이며, 아버지는 제준인데 그의 증조부인 진후(震厚)가 10년 동안의 옥중 생활 끝에 치명(순교)을 당하자 조부인 택현(擇鉉)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로 이사하였으므로 그는 거기서 성장하였다.

그의 부친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며, 1839년 기해박해 당시 한성의 서소문 밖에서 순교당하였다. 그는이미 프랑스 신부 모방(Maubant)에 의해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최방제, 최양업 등과 함께 15세 때 마카오 소재 「파리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로 가게 되었다.

그는 그 이전 이미 모방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예비신학생에 선발되어 상경, 역관(譯官)인 유진길(劉進吉)에게서 중국어를 학습한 후 중국(淸)에 건너갔다. 외방전교회에 도착한 이후 그 곳 칼레리 신부로부터 신학 등 신학문과 프랑스어, 중국어, 라틴어를 학습하였다. 그 뒤 마스트르 신부에게서 신학, 신철학을 연구했다. 그 뒤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 페레올주교의 지시로 동북 국경을 통하는 잠입로 개척을 위해 남만주를 경유하여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경원을 거쳐 입국하려다 실패하였다.

그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1844년에는 부제(副祭)가 되었다. 1844년 말 서북 국경을 넘어 다음 해 1월, 10년만에 귀국하였다.

그는 서울에 정착한 후 박해박는 천주교회를 다시 수습하고 다시 프랑스 외방전교회에 지원 요청을 위하여 그 해 쪽배를 타고 상해에 건너갔다. 「금가항(金家港)신학교」에서 탁덕(鐸德)으로 승품(陞品), 한국인 최초의 신부에 임명되어 만당성당에서 처음 미사를 집례하였다. 같은 해 8월 페레올 주교(主教), 다블뤼신부와 함께 중국 상해를 출발하여 충청도 강경(江景)에 잠입한 후 서울에 돌아와 각처를 순방하고 비밀리에 신도들을 격려하면서 활발한 전교(傳敎)활동을 전개하였다.

1846년 5월 선교사의 입국과 선교부와와의 연락을 위한 잠입 항로 개척을 위해 황해도 등산(登山)지방을 답사하다가 순위도(巡威島)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전후 6회에 걸친 혹독한 문초를 통



1846년 9월 26일
꽃다운 25세의 나이로
서울 한강 강변 새남터
(현재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형장(刑場)에서
군문호수형(軍門梟首刑)으로
치명(순교)되었다.

하여 국금(國禁)을 위반하고 해외에 유학한 사실 및 천주교회의 핵심적 지도자임이 밝혀졌다. 이에 조정에선 그에게 「염사죄반국지율(染邪之罪反國之律)」이란 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프랑스 선교부와 신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및 교우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긴 후, 그 해 9월 26일 꽃다운 25세의 나이로 서울 한강 강변 새남터(현재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형장(刑場)에서 군문호수형(軍門梟首刑)으로 치명(순교)되었다. 그의 시체는 교인들이 비밀리에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에 안장하였다.

그 후 1857년 그는 로마 교황청에서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되었고, 1925년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시복식(諡福式)이 거행되고 한국 전체 성직단 대주보(大主保)로 정해졌다. 또한 교황 바오로 11세에 의해 복자위(福者位)에 올랐고, 지난 1984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오로 11세로부터 김대건 신부 등 천주교 한국인 순교자 103위 시성식이 여의도광장에서 거행되어 성인의 위치에 올랐다.

끝으로 특기할 사항은 그가 한국 천주교회의 수선탁덕(首先鐸德: 첫 번째의 성직자라는 칭호)이란 사실 이외에 한국 최초의 근대 유학생이요, 한국인 최초의 나침반 사용자이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작성보다 16년이나 앞서 1845년 이미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당시 프랑스 신부들에게 전달했던 사실이(파리 국립도서관 지도부에 소장돼 있음) 확인되었다는 것과, 또한 그의 서한문 25통이 프랑스어로 씌어져 역시 프랑스에 보존돼 있으며 「아편전쟁(1840~42)」이 끝나면서 「난징조약」 체결 당시 프랑스 대표의 통역관으로 참석했음과 150년 전 그는 5개 국어(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에 능통한 어학자였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자료제공: 당진문화원



즉흥성의 대가(大家) 명창 이동백

이동백은 미성을 타고 났고 성량 또한 풍부해 고종의 사랑을 받아 어전에서 소리를 하기도 했다. 고종은 그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함을 주었고, 순종은 그가 원각사에서 소리를 할때면 전화통을 귀에 대고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근대 5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백(李東伯)은 1876년 충남 서천 비인에서 태어나 13세때부터 중고제 김정근(金正根)과 동편제 김세종(金世宗) 문하에서 판소리를 공부했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이동백이 8~9세때부터 13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나 독서에는 뜻이 없고 가요에만 취미가 있어 결국 글공부는 그만두고 김정근 문하에 가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20세가 될 즈음에는 서천 회리산에서 2년간 독공(獨工)을 하였고 전주 이곡사(里谷寺)에서 3년간 공부하는 등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제를 구축해 나갔다. 일화로 그가 독공을 할 때 소나무 앞에서 통성을 내지르면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였다고 한다.

창원부사의 부름으로 <새타령>을 불러 경남 창원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는 46세때 상경해 김창환, 송만갑 등과 원각사에서 창극 공연을 했고 1933년에는 송만갑, 정정렬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해 판소리 교육에 힘썼다.

이동백은 미성을 타고 났고 성량 또한 풍부해 고종의 사랑을 받아 어전에서 소리를 하기도 했다. 고종은 그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직함을 주었고, 순종은 그가 원각사에서 소리를 할때면 전화통을 귀에 대고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근대 5대 명창중에서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명창이었다.

그는 <심청가>와 <적벽가>를 잘 불렀고 <새타령>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그의 <새타령>은 이날치(李捺致) 이후 최고로 손꼽힌다. 새소리를 그대로 묘사해 내는 그의 <새타령>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다. 이외에도 <홍보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심청가>, '범피중류(泛彼中流)' 대목이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동백의 판소리는 즉흥적이고 독특하다 보니 제대로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동백의 수제자였던 강장원은 장수하지 못하고 1962년 53세로 작고하고 말았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동백의 소리제는 강장원 이후로 전승이 끊어지고 말았다.

| 이동백의 판소리 |

판소리 5명창 중에서 즉흥성과 독창성이 가장 뛰어난 이동백은 판소리를 주로 독공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구축해 나갔고, 건강한 풍채와 탁월한 미성은 그의 독특한 소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통성과 미성을 기본으로 한 호령조 성음으로 판소리를 시원하게 했으며, 청중의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판소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선율과 성음으로 즉흥적인 편곡에도 탁월했고, 최고음과 최저음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급박하게 몰아가는 창법을 잘 구사했다.

당대 음악평론가였던 박용구(朴容九)는 명창 이동백의 소리를 접한 뒤, <레코드 史外史-옥관자의 李東伯>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부민관 무대에서는 비공개로 한국의 음악과 춤이 공연되고 있었다. 녹음이나 녹화도 없던 시절이고 보면 아마도 일본의 고관 나부랭이가 와서 ‘광대’들을 동원시킨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름만은 듣고 있던 이동백의 ‘창’과 한성준의 ‘학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동백은 <새타령>을 불렀던 것 같다. 북은 명고수 한성준이었는데는 모르겠다. 그는 풍채부터가 당당했다. 행동거지에 자신이 넘쳐 보였다. 그 때 이태옥(高宗)이 하사했다는 옥관자(玉冠子)를 망건에 달았는지 기억에 없으나 유별나게 커 보이는 통영갓은 눈에 선하다. 그 당시 바리톤을 공부하고 있던 내게 이동백의 창은 남성다운 우렁찬 목청이 거침없이 흘러 나와서 시원스럽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동백의 즉흥성의 최고조는 <새타령>이라고 할 수 있다. 새소리를 그대로 묘사해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가 남긴 유성기음반을 들어보면 같은 <새타령>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대목을 찾기 어려울 만큼 즉흥성이 뛰어나다. 즉, 그는 <새타령>이 동일한 선율로 진행되더라도 소리의 높낮이, 음정, 불임새 등의 다양한 요소로, 녹음할 때마다 변화를 추구했다. 특히, 불임새(판소리 고법의 하나로 음악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음악적인 미감을 더하기 위해 쓰이는 기교)와 선율의 조합을 능수능란하게 함으로써 변화무쌍하고, 독특한 그만의 소리제를 창출해 내었다.

| 이보형의 음반이야기 |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에 드는 이동백은 일제 강점기에 송만갑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대단한 명창이었다. 비록 송만갑만큼 치밀하지는 못했지만 풍성한 성음과 웅대한 표출력은 당시에 그를 따를 명창이 없었다. 특히, 그는 ‘적성가’, ‘법피종류’와 같은 진양 대목에서 웅혼한 빛을 발하여, 당대 지식인들은 그를 ‘한국의 살라핀’(러시아 오페라 가수), ‘한국의 카루소(이탈리아 성악가)’라 불렀다.

당시 대중들은 이동백의 장기로 <새타령>을 꼽았다. 실제 공연에서 그는 아기자기한 성음으로 특유의 새 울음소리를 기막히게 구사해서 그가 부른 <새타령>의 인기는 천정부지였다. 실제 음반을 들어보면 그의 인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새타령>은 자진중중모리로 “삼월삼진날 연자 나라들고”로 시작하여 느린중중모리로 “새가 나라든다”로 들어가는 신제와 곧 바로 자진중중모리로 “새가 나라든다”로 시작하는 구제가 있는데 이동백은 이중 구제로 <새타령>을 불렀다.

자료제공 : 서천문화원

청양 정산 동화제(靑陽 定山 洞火祭)

제일(祭日)이 되면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목욕재계를 한 다음 산에서 나무를 한 짐씩 베어다 동아줄로 한 뭉치로 동화대를 세우고 달이 뜨면 그 앞에서 마을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소재지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하송

지정번호 :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1989. 12. 29)



정산면 소재지에서 유구로 가는 39번 도로를 따라 약 4.5km정도 들어가면 송학리 하송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 국태민안과 각 가정의 대길과 행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모든 부정한 것을 불에 태워 액운을 제거하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동화제를 지낸다. 동화제는 약 400년 전부터 청양군 칠갑산(七甲山)을 중심으로 몇몇 마을에서 전승되어 왔고, 정산면 송학리의 동화제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대항하기 위해 화전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동화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밤에 지낸다. 그러나 만약 제일을 앞두고 동네에 초상이 나면 제는 이후 적당한 날을 택일하여 지내게 된다. 동화제의 주관은 유사를 맡은 집에서 하게 되는데 유사는 심신 청결, 살생 금지 등의 금기를 지켜야 한다. 제일(祭日)이 되면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목욕재계를 한 다음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베어다가 동아줄로 한 뭉치로 동화대를 세운 다음 달이 뜨면 그 앞에서 마을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동화제에 쓰이는 제물은 밤·대추·삼색실과·돼지머리·백설기·명태 등이고 제비는 마을 공동 기금과 각 집마다 엄출한다. 제사는 동화대에 불을 붙인 후 시작하는데, 첫 잔을 동화대에 던지고 재배한 후 축문을 읽고 풍물을 친다. 이후 다시 재배, 잔올리기, 재배, 소지 올리기와 과정으로 끝난다. 제가 끝나면 주민들이 준비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흥겹게 놀고 이웃마을과 쥐불놀이를 하면서 함께 뭉칠 것을 다짐한다. 송학리 동화제는 1989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예능보유자는 오영범(吳永範) 씨이다.

| 동화제의 상징과 의미 |

동화제는 거대한 싸리나무해에 불을 놓음으로써 그 불과 함께 온갖 재액이 소멸될 것이라는 유감주술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동화를 제작하는데 잡목을 쓰지 않고 싸리나무를 고집한 까닭은 화력이 좋아 잘 꺼지지 않는데다 불기운이 맑고 깨끗하여 재액초복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제일에서 알 수 있듯이 동화제는 복을 빌고 새해의 소망을 축원하는 달맞이의 전통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동화가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의 액땀을 기원한다. 이때 동화가 잘 타야 액운이 없고 도중에 꺼지거나 불길인 신통치 않으면 불상사가 닥칠 징조로 여긴다. 이와 더불어 동화가 쓰러지는 방향을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동네쪽으로 쓰러지면 액운이 들어오고 동구 밖으로 넘어지면 액운을 몰고 간다고 한다. 이처럼 동화제는 달집태우기와 더불어 새봄과 풍년을 예측하고, 온갖 액운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역동적인 의례로서 달과 맺어진 정월 대보름 의미가 종합적으로 녹아든 세시풍속의 표상으로 우뚝 서 있다.

자료제공 : 청양문화원

예산 대흥면 머슴제

“매년 2월 음력 초하루 머슴 제사 지내며 대동단결”
60년째 전통 이어오는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걸출한 인물도 아닌 한낱 머슴을 위해 오랫동안 온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에서는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머슴 생일날 독특한 행사를 치른다. 마을주민들이 평생 머슴살이를 하다 죽은 한 남자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벌써 60년째.

이 마을 5개 반 주민들은 매년 반별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해 이 남자의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며, 망자를 추모하고 하루 종일 마을잔치를 벌인다. 60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통은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은 물론 면내 기관단체장, 출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푸짐한 음식을 마련해 잔치를

베풀고 웃놀이, 사물놀이, 각종 경연대회 등 놀이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있다.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던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머슴 생일이라고 해서 음력 2월 초하루와 7월 15일 백중날에 주인이 머슴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감사해 하며 그들을 위로했다. 이는 농사 시기와 관계가 있는데 음력 2월 초하루는 한 해 농사를 앞두고 풍년농사를 머슴들에게 부탁하는 날이었고, 7월 15일은 추수를 앞두고 한해 농사를 잘 끝내 준 것을 감사해 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생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생일을 챙길 처지도 되지 못했던 머슴들에게 노동의 피곤함을 잊고 맘껏 먹고 놀 수 있는 이날은 진정한 머슴들의 생일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60여 년째 머슴의 제사를 지내며 주민들의 대동화합을 다지는 사연을 살펴보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윤인섭. 고향은 황해도이다. 그는 고향과 이름 이외에는 본관도 이름자를 어찌 쓰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천에 고아가 된 그가 유랑을 하면서 남하하다가 예산군 대흥 땅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 때가 1930년경인데, 그는 골격이 장대하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장사로 우직하고 성실했다고 한다. 윤인섭은 대흥면 신속리와 노동리에서 10여 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다. 매년 새경을 받아쓰지 않고 모아 장리(長利)를 쥐 땅도 사고, 집도 장만했다고 한다.

마을의 원로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릴적부터 지병인 간질병을 앓고 있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또 한 집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무척 심성이 착했다고 한다.

병으로 인해 하루 중 주인집 일이 조금이나마 그르치게 되면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쟁이 터졌고, 1950년 7월 21일 혼자서 아침밥을 먹다가 발작이 일어나 57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사망하게 된다. 이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장의위원회를 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줬다. 사흘 뒤에 치러진 장례식에서는 마을 연변계의 상여를 빌려 쓰고 술과 밥 등 음식을 충분히 준비했다.

또 발인제와 분묘제물도 구입해 의식을 갖추고 주민들이 모두 모여 호상(護喪)하는 부락장으로 치러 망자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했다.

또 그가 남긴 유산은 마을 공동명의(동답)로 관리하고 예부터 머슴 생일이라 부르는 음력 2월 초하루를 정해 이장이 제주가 돼 묘제를 치르기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마을이장 박성수 씨는 “마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전통은 대대손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는 그의 행실록까지 만들어졌다. 뛰어난 인물도, 평범한 사람에도 속하지 못했고 남의 집살이를 하던 ‘머슴’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당시 그의 행실록을 집필했던 박기홍(87·신양중학교 전 교장) 옹은 “문화와 전통은 굉장히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 세대가 달라지다보니 동네에서도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희미해졌고, 또 우리군 차원에서 다양한 마을 문화를 알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에 문화원과 군청, 군의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이 행실록을 보이고 농촌의 전통인 머슴 생일 행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만뒀다”며 아쉬워했다.

박 옹은 행실록을 통해 윤인섭과 탄방주민들의 미담이 갖는 교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그는 비록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몸쓸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탄생했으나 그가 살아온 자취는 착하고 온유하며 누구에게도 겉으로 표시 나는 선행은 하지도 못했으나 자기 스스로를 선하게 살고 결코 악행을 하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세인의 칭송을 받고 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조그마한 선행만 해도 그것이 크게 빛이 날 수가 있음을 알게 됐다.〈중략〉 주민일동의 단합되고 선량한 행실이 고인의 불행했던 생애를 빛내고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당초에 장의위원회에서 결의한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사초와 입비(立碑)사업 등을 시행하고 매년 벌초 등 분묘관리를 공동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머슴 생일날을 택해 묘제를 올리고 마을잔치를 베풀어 주민들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게 하고 있다”

박 옹은 끝으로 이와 같은 미풍양속을 우리 고장의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자료제공 : 예산문화원



마을주민이 윤인섭 씨의 묘를 안내했다. 표석에는 연고가 없던 그의 쓸쓸한 삶을 보여주듯 이름석자만 새겨져 있다.

충남의 집지킴 신

■ 성주신

성주신은 여러 가신(家神)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신이다. 다른 신들은 그 신이 깃든 장소나 구실이 한정되어 있으나 성주신은 집자체의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인 가신으로 새집을 짓거나 이사해서 제일 먼저 성주 맞이 굿 등을 하여 제일 가신을 모신다.

충청도의 성주형태는 일정하지 않다. 대전 대덕에서는 안마당 기둥에 돈을 한지에 싸 네모로 접어 붙였으며, 당진은 성주굿을 하고난 백지를 물에 적신 후 그것을 문쳐 안방의 제일 높은 기둥에 붙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집안의 가장 높은 곳, 중심이 되는 곳에 모시며 신체는 곡식, 한지 등이 보편적이다. 성주신은 농경적인 성격이 강해서 햇곡식을 바칠 뿐 아니라 새 성주는 반드시 추수가 끝난 시월에 모신다. 무당이 천석이요~ 만석이요 라고 축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 토지신 · 조상신

토지신은 집터를 관장하는 신으로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뚜렷한 비중을 차지하나 충남 이남으로 내려갈수록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백제시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제163호 무령왕지석(誌石)중 3면에 보면 토지신에게 무덤의 터를 돈을 주고 샀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충남에서는 정초에 향아리에 들었던 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고 깨끗한 물 한동이와 함께 장독대에 놓으며 축원한다. 물을 땅에 세 번 뿌리고 떡을 집안의 여러곳에 나누어 놓았다가 이튿날 거둔다.

조상신은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대체로 안방 시렁위에 모시며 신체는 작은 단지안에 담긴 곡식이다. 충남에서는 곡식 외에 깨와 같은 양념이나 돈을 신체로 삼기도 한다. 이 신에게는 명절 등에 상을 차려놓고 집안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특이한 점은 고기나 술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지에 들어있던 곡식으로는 밥을 지어 식구들끼리만 먹으며 남에게 주면 그만큼 복을 잃는다 하여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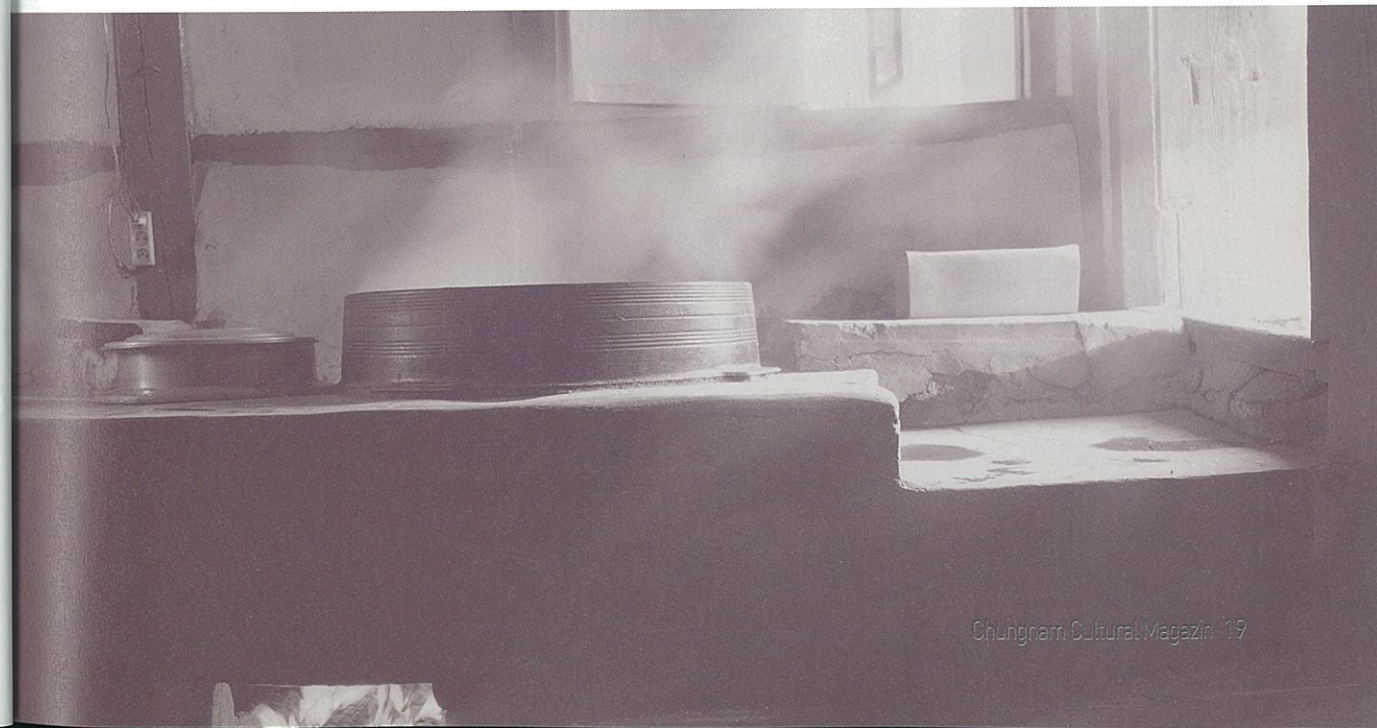
■ 삼신 · 조왕신(竈王神)

삼신은 아이를 낳게 해주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여성신이다. 흔히 삼신할매로 불리며 어린아기의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삼신할매가 불기를 때린 자국이라 여긴다. 조왕신은 부엌의 신으로 지역에 따라 부뚜막신, 조왕할매, 조왕대감 등으로도 불린다. 부뚜막 벽에 흙으로 작은 틈을 붙이고 이 위에 물이 담긴 종지나 단지를 올려놓는다. 따라서 신체는 그릇안의 물인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조왕신은 음력 12월 23일에 승천하여 1년 동안 주인집의 일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한 뒤 설날 새벽에 돌아온다고 한다. 따라서 그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조왕이 승천하기전에 아궁이에 엿을 발라 옥황상제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풍습이 있다. 아궁이는 조왕의 입을 상징하므로 이렇게 하면 조왕이 옥황상제에게 가기 어렵고 가더라도 입이 열리지 않아 자기의 비행이 드러나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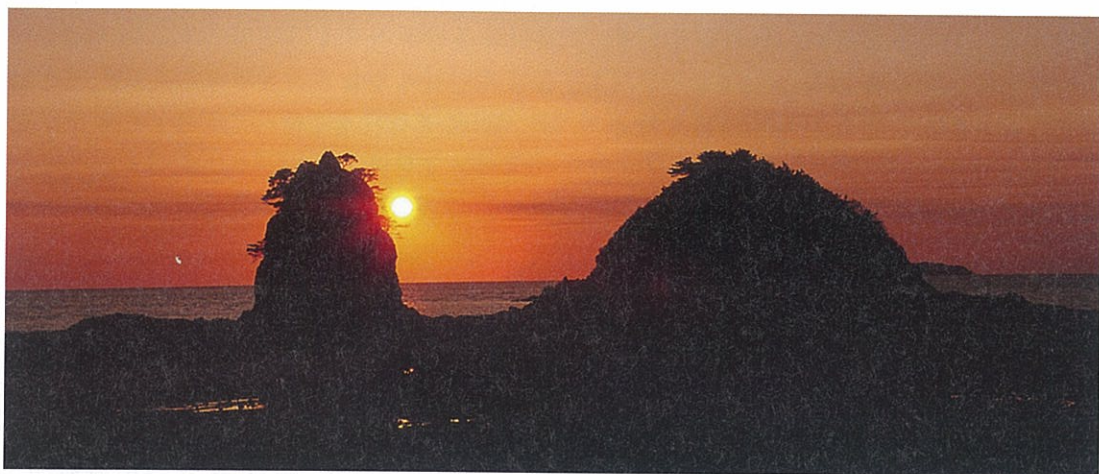
■ 업

업은 집의 재운(財運)을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 뱀, 족제비 등의 동물이 위주가 된다. 사람 업은 가족이나 외부사람을 업으로 여기는 경우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집에 재운이 붙고 좋은일이 일어나면 부모들은 이 아이를 <업둥이>라 하여 특별히 아낀다. 또 집에 개구멍받이가 들어왔을 때 이를 <업>으로 여겨 내치지 않고 기르는 관습도 이를 사람 업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이 아이를 다른집에 주어버리면 한번 들어왔던 업이 빠져나간 것이 되어 불길하다고 믿는다.

자료제공 : 온양문화원



남편을 그리다 돌이 된 할미바위



약 1,150여 년 전인 신라의 흥덕왕 때였다. 당시 바다를 주름 잡고 있던 장보고는 청해진(靑海鎮=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거점을 정하고 해상 활동을 펴나가는 동시에 서해안의 견승포(安面島)에도 해상 전진기지를 두었던 것이다. 안면도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장보고는 이 기지를 관할하는 책임자로 승언이라는 사람을 두어 다스리도록 하였다.

승언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견승포에 부임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였다.

즉 갈매기떼 날아드는 푸른 바다와 하늘을 찌를 듯한 울창한 산림, 그리고 바닷가에 깔려있는 흰모래 등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승언은 시간이 허용되는 때면 언제나 아름다운 바닷가를 아내인 미도와 함께 산책하곤 하였다. 이렇게 부부가 산책할 때마다 부부의 정은 깊어갔고, 따라서 마냥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승언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였다. 철저한 애처가였던 것이다.

또한 승언은 이따금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하들이 바다에서 맛있는 고기라도 잡아오면 꼭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럴때면 승언은 일찍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생선을 요리하여 맛있게 먹곤 하였다. 이렇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남편을 미도는 무척 기쁘고 흐뭇해하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승언은 무슨 일이든지 아내를 먼저 생각했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기필코 해내고야마는 성격을 지니었다. 이같이 승언은 미도를 사랑하였고, 미도 또한 남편을 매우 믿음직스럽게 여겼다. 승언은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라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는 모범적인 충신이었다.

항상 나라 일에 몰두해서인지 그가 관할하는 견승포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다스려지고 있었다. 승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만큼 부하들도 역시 사랑으로 다스리며 점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견승포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날, 멀리 청해진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그 내용은 “승언은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진다는 게 한없이 안타까웠지만 상사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승언은 즉시 출정 준비를 서둘렀다. 평소에 훈련이 잘된 군사들은 매우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견승포에 주둔했던 군선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다. 이때 미도는 바닷가에 나와 멀리 출정하는 남편과 군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은 늙은 모습으로 갑판 위에 올라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를 지켜보고 서있는 아내는 이날따라 남편이 몹시 미덥게 여겨졌다. 군선은 포구를 뒤에 두고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내 미도는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물가물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군선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집에 돌아온 미도에게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쓸쓸함이 휩쓸려 왔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미도는 기껏해야 앞뜰을 서성거리다가 방에 들어와서 공상에 잠기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남편의 건강은 어떠한지, 내일은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 속이 꽉 차 있었다. 이렇게 매일 같이 밤낮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미도의 심정은 초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새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을 오늘 내일하면서 기다린 것이 벌써 수일이 지났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초조하게 매일같이 기다리던 미도의 마음이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만히 집안에서만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미도는 쏜살같이 바닷가로 뛰어 나갔다. 지난날 남편이 출정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견승포의 높은 바위에 올라가 사랑하는 부군(夫君)이 돌아오는 군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따금 한 두 척의 어선만이 지나가고 무심한 갈매기만이 날아들 뿐 끝내 군선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속태우며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린 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나가고 말았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은 틀림없이 돌아 올 것이라 믿고 한결같이 바위 위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날씨가 아랑곳 하지 않고 한평생을 남편이 돌아오는 군선을 기다리다 마침내 이 바위에서 죽고 말았다. 그 뒤 이 바위는 미도가 남편을 기다리며 멀리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변했다. 그러니까 망부석이 된 것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위를 할미바위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태안문화원



아야목 이야기

물을 급히 마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쥐고 땀굴땀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다. 목이 몹시 타던 차에 급하게 마신 물은 목을 몹시 아프게 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목이야.” “아야 목이야.” “아야 목이야.” 하며 비명을 질렀다.



얼마전에는 고등리가 연기군 전의면이었는데 1994년 1월 1일부로 소정면이 신설되어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가 되었다.

고등리에는 ‘고려산’이라 부르는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는 돌과 흙을 이용하여 쌓았던 산성이 있다. 이곳을 고려산성이라 부르며 산성 아래 마을을 ‘아야목’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불리우게 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고려시대 북쪽 오랑캐의 잇따른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때가 별로 없었다. 충렬왕 17년 몽고

족이 원나라에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하자 고려를 침략하였다. 몽고족은 고려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고 불을 지르며 양민까지 살상하면서 남으로 남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당시 왕인 충렬왕은 이들 몽고족을 물리치지 못하고 서울인 개성에서 강화도로 피난을 할 정도로 고려는 몽고족을 막지 못했다.

고려의 주민들은 왕이 강화도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하여 피난을 하는 이가 점점 늘어남으로 남으로 오다보니 고동리 고려산성에 이르렀다. 조그마한 산성에는 고려 병사들과 피난민이 몰려오니 마치 큰 대목장이 선 것 같이 붐비었다.

이번에 쳐들어온 몽고족은 기어코 고려를 정복하여 완성을 거두려고 공주에 있는 웅진성으로 향하고 있었고 기회를 보아 이들을 무찌르려고 기다리는 고려 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초가 더욱 심하였다. 피난민들은 황급히 오느라 많은 식량을 가져 오지 못했고 군사들은 군량미가 바닥이 나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식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곤란한 것은 물이 부족한 것이다. 성안에 있는 우물은 마른지가 오래되고 성아래 깊고 깊게 판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고 하루종일 고인물을 퍼서 군사와 피난민이 나누어 먹기란 너무도 부족했다.

마을과 성안에 있는 우물이 떨어지자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먼 곳에서 길어오는 것 또한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어렵게 물을 구해오면 위 아래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서로 다투다시피 하면서 싸우는데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정성스레 제물을 차려놓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늘을 향해 비내려 주기를 간곡히 빌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되어 오후에 접어 들자 이글이글 찌던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모인 사람들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하늘을 향해 정성을 다하였고 하늘은 금세라도 주룩주룩 비를 내리려고 겁게 변하였다. 구름구름 하늘에서 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숨을 죽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학수고대 한게 벌써 서너시간, 금새 비가 내릴것만 같았던 하늘에서는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옅드려 정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실망의 눈빛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비가 내릴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자 더 이상 기우제를 믿지 않게 되었다.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원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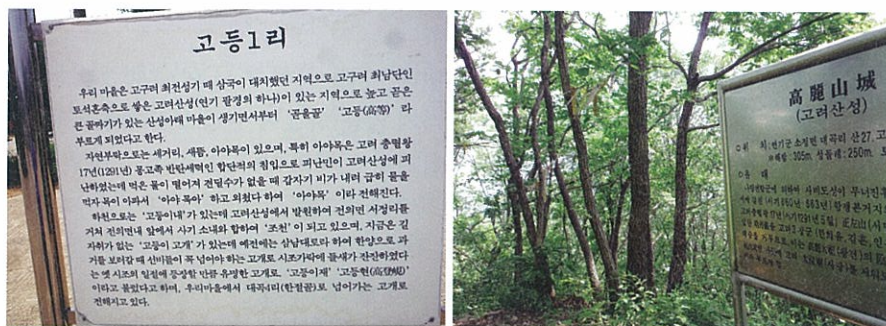
이제는 정말 절망뿐이었다. 오랑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이었다. 당장 목이 타서 앞에 헛것이 보이느냐 하면 죽은듯이 누워있는 이가 태반이었다.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비를 기다린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다시 한 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또 한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두가 일어나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비는 거세게 퍼부었다. 춤을 추던 사람들은 우선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나 나뭇잎,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면서 빗물을 받아 마시었다. 그런데 물을 급히 마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목을 쥐고 때굴때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다. 목이 몹시 타던 차에 급하게 마신 물은 목을 몹시 아프게 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목이야.” “아야 목이야.” “아야 목이야.” 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물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피난민은 성아래 마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시작하는 이가 있었고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 하는 이가 많았다.

병사들은 몽고족 섬멸에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였다. 오랑캐가 연기 정좌산에 머무르고 있다는 전갈이 왔다. 이곳에서 정좌산까지는 한나절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병사를 지휘하던 장군들은 모두 모여 작전을 개시하였다. 한밤중에 오랑캐 몰래 접근하여 동이 틀무렵 모두 곤히 잠든 사이에 진격을 하기로 하고 전의를 거쳐서 솔티고개를 넘어 정좌산 앞 대박산(함박산)에 이르러 우선 그곳에 큰술을 걸고 밥을 해서 배부르게 먹은 후 작전대로 일제히 공격에 들어갔다. 때 아닌 공격을 당한 몽고족은 험준한 산을 뒤로 하고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몽고족들은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다. 당시 죽은 시체가 금강까지 30여리 널려 있을 정도로 고려군사는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이나 피난민은 고동리 고려산성에서 있었던 물로 인해 목이 몹시 아파서 ‘아야목’이라 소리치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그 곳 마을을 ‘아야목’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아야목 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자료제공 : 연기문화원



계룡산 중악단(鷄龍山 中嶽壇)

국가에서 산신에게 제(祭)를 올린 유일한 유적



지정번호 보물 제1293호
지정일 1999년 3월 2일
위치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번지
소유 신원사
시대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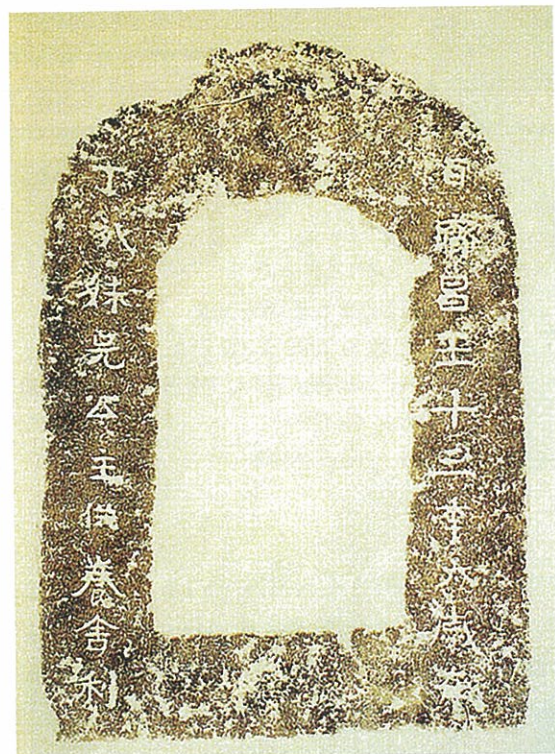
중악단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진 계룡산의 산신(山神)에게 국가가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운 조선시대 건축물이다. 신라 때 5악의 하나인 ‘서악(西嶽)’으로 일컬어진 계룡산에서는 그 당시부터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계룡산의 중악단은 계룡산사(鷄龍山祠), 계룡단(鷄龍壇) 등으로 불리워 왔다.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묘향산을 상악으로, 남쪽의 지리산을 하악으로, 중앙의 계룡산을 중악으로 하여 단(壇)을 모시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무학대사의 꿈에 산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태조 3년(1394)에 처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하며, 철종 2년(1851)에 제단이 폐지되었다. 그 후 고종 16년(1879)에 명성황후의 명으로 다시 짓고 중악단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상악단과 하악단은 없어져서 그 유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중악단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에서 산신에게 제사지냈던 유일한 유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계룡산 중악단은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건축사적, 기술사적 및 학술적 등으로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재로서 1999년 보물 제1293호로 지정되었다.

자료제공 : 공주문화원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백제 역사 연구에 새로운 금석문 자료로서 백제와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사리를 봉안한 연대와 공양자가 분명하고, 백제 절터로서는 사찰 창건연대가 당시 유물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은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에 소재한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에서 1995년 5월 출토되었다. 이 절터는 동쪽으로 200m에 위치한 백제왕릉을 수호하고 이곳에 묻힌 백제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능사(陵寺)로 추정되고 있다. 바로 이 절터의 공방지에서 1993년 12월 백제 고고학의 최대 성과요 세기적 발견이라고 말하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가 출토되었다.

사리감은 사리를 보관하는 용기로, 능산리사지 중앙부에 위치한 목탑 자리 지하 114cm 아래에서 비스듬히 놓인 채 발견되었다.

출토 당시 이미 사리감은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사리장치와 사리는 없었다. 사리감은 위쪽은 원형, 아래쪽은 판판한 높이 74cm, 가로·세로 50cm인 터널형이다. 감실 내부의 크기는 높이 45cm 정도로 파내어 턱을 마련하였는데 내부에 사리 장치를 놓고 문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실의 좌·우 양쪽에 각각 중국 남북조 시대의 서체인 예서(隸書)풍의 글자가 10자씩 새겨져 있다.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백제창왕십삼년태세재)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정해매형공주공양사리)

위와 같이 총 20자인데 서기 567년 성왕(聖王)의 따님이자 창왕(昌王)의 여자 형제인 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명문에 나타나는 창왕은 바로 백제 제27대 위덕왕(威德王, 재위 554~598)으로 창왕은 살아있을 때 이름이고 위덕왕은 돌아가신 후에 지어 올린 시호이다.

이 사리감은 백제 역사 연구에 새로운 금석문 자료로서 백제와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사리를 봉안한 연대와 공양자가 분명하고, 백제 절터로서는 사찰 창건연대가 당시 유물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더불어 사리감 명문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삼국사기』에는 즉위년칭원법(전왕이 사망하는 해가 곧 새 왕의 즉위원년이 되는 즉위연대 표기법)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문에 의해 555년이 위덕왕의 즉위원년으로 밝혀지게 되어 당시에는 유년칭원법(전왕이 사망한 다음 해가 즉위원년이 되는 표기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사리감 명문에 연호(年號)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다른 금석문 자료에도 연호가 없다. 이 점은 백제만의 특색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능산리사지가 위덕왕 때 창건된 능사로 밝혀지면서 성왕의 능은 부여 능산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성왕이 부여로 천도를 했지만 능은 공주에 만들었을 거라는 학설을 주장하였으나 이로써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한편 위덕왕은 성왕의 맏아들로서 태자 시절 성왕을 도와 신라 정벌에 앞장섰었다. 당시 신라가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자 이에 격분한 성왕은 554년 신라에 대한 보복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때 백제에서는 신라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귀족세력이 있었지만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군사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태자 창이었다. 당시 선봉에 나선 창은 마침내 관산성(管山城: 충북 옥천)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백제는 성왕과 4명의 좌평(佐平)을 비롯하여 2만9천6백 명에 가까운 사졸이 전사하였다. 성왕의 전사로 태자 창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결국 능산리사지는 관산성 전투에서 역울하게 전사한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어진 왕실 사찰인 것이다.

자료제공: 부여문화원

고산사

1974년 문화재 연구소에서 학술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발견된 암막새 기와에서 시주들의 성명과 함께 “天啓六年月日高山寺(천계육연월일고산사)”라고 새겨진 명문이 있었는데, 천계 6년은 조선조 인조 4년(1626)에 해당되는 바, 이 해에 고산사 대웅전이 대대적으로 중수(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산사는 신라말 도선국사가 지었다고 전하지만 건물의 위치와 앞마당에 있는 석탑들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절로 짐작된다.

고산사 대웅전은 홍성군 결성면 소재지로부터 서북쪽으로 결성~갈산방면 지방도를 따라 약 2km 거리에 있는 무량리 청룡산(靑龍山)의 동쪽 사면 중 북에 위치한 고산사 경내에 있다.

고산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20 결성현 불우조(佛宇條)에 “高山寺在靑龍山”(고산사는 청

룡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같은 책 산천조(山川條)에 “靑龍山一名高山 在縣西北五里”(청룡산은 일명 고산이라 하며 결성현의 서북쪽으로 5리 지점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 고산사의 사명(寺名)이 청룡산의 다른 명칭인 고산(高山)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974년 문화재 연구소에서 학술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발견된 암막새 기와에서 시주들의 성명과 함께 “天啓六年月日高山寺(천계육연월일고산사)”라고 새겨진 명문이 있었는데, 천계 6년은 조선조 인조 4년(1626)에 해당되는 바, 이 해에 고산사 대웅전이 대대적으로 중수(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수 현판의 내용에 의하면 조선조 성종 16년(1485)에 네 번째 중수(重修)가 이루어졌고, 인조 14년(1636)에도 중수가 있었음이 기록되었다. 그 뒤에도 현종 13년(1672), 1927년, 1961년, 1974년, 1984년, 1990년으로 이어지면서 보수가 있어왔다.

한편 이때 대웅전(大雄殿)현판 뒷면에 “終南山麓有廢寺在基名當仙寶(종남산늑유폐사재기명당선보)(이하 생략)”이라고 새겨진 ‘선학사영건기(仙鶴寺營建記)’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고산사 대웅전(大雄殿)의 현판은 선학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겨다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제공 : 홍성문화원

배사랑, 농업사랑, 천안사랑

2011 천안성환배축제



1. 추진목적

- 지역민 일체감 조성과 배 재배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고품질 생산 기폭제 역할
- 100년 전통의 지역특산품인 천안배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우기 위한 홍보 전개
- 가을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천안배의 적극적인 판매 효과 극대화
- 지역 특산물인 배를 통한 화합과 단결 유도로 시민과 배 재배 농업인의 축제로 정착

2. 행사개요

- 행사명 : 『2011 천안성환배축제』
- 주제어 : 배사랑, 농업사랑, 천안사랑
- 행사일시 : 2011년 11월 5일(토) 11:00~22:00
- 행사장소 : 남서울대학교 야외 특설무대 및 전시장
- 내방객 : 3,500여명(농업인 1,000명, 지역민 및 소비자 등 2,500명)

- 주요내용 : 개 · 폐회식, 공연, 전시, 품평회, 판매, 이벤트 등
- 주 최 : 천안배원에농협동조합
- 후 원 : 천안시 · 성환농협 · 천안공주낙농협 · 관련기관과 단체 등

3. 주요 행사내용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식전행사	■ 배 농업인 한마음대회 ○ 의전행사 : 우수농업인 표창, 내빈 및 임원소개, 인사말 등 ○ 무대행사 : 고전무용단, 진도북춤, 초청가수, 행운권 추첨 ○ 퍼포먼스 : 배겨자채썰기(관람객 배요리 시식 제공) ■ 천안성환배축제 개막식 ○ 내빈소개, 배 품평회 표창, 대회사, 축사, 격려사 등 ○ 관내 초 · 중 · 고 글, 그림, 휘호대회 : 700여명 참가
공연행사	■ 2011 반딧불가죽음악회 ○ 시립홍타령풍물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안기원(7080가요) ○ 우리동네스타(댄스), 우명균(색소폰), 김도희(트롯트 메들리) ■ 특집 공개방송 연예인 축하공연(12팀) ○ 1부 : 강민주, 조성규, 은정은, 류기진, 문연주, 김종환 ○ 2부 : 김민교, 안유정, 김세현, 워크, 배일호, 김혜연 ■ 천안성환배가요제(18팀 참여) ○ 최우수상(대상) : 조금숙(女, 68세,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천 안 배 홍보행사	■ 배 전시회 및 품평회 ○ 동 · 서양배 품종, 수출품, 친환경품, 가공품, 공예품, 배요리 등 ○ 품평회 및 친환경품 53점 출품(최우수상 : 안삼하 조합원) ■ 배 시식 및 판매행사 ○ 배 시식수량 : 2,000kg(100상자/20kg) ○ 배 판매금액 : 4,700천원(30% 할인 판매)/1천상자 ○ 배 막걸리 시식 : 8,000병(160,000 l / 8,500천원) ■ 배 음식만들기 및 요리 체험관 운영 ○ 다양한 배요리 제공으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음 ○ 배겨자채, 배떡케익, 배와플, 배초콜렛, 배육회비빔밥, 배쇠고기를 (배쇠고기철판구이), 배고추장, 배물김치, 배음료, 배양갱
특색행사	■ 영농자재 및 농기계전시회 : 과원농기계, 비료 등 ■ 무료 건강진료행사(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 무료 먹거리 운영(관람객 및 농업인) ■ 농업인쉼터 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4. 행사후기

- 전시장 및 품평회장에서 천안배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 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천안 전지역, 성환역 왕복)
- 농업인 참여 유도를 위한 행운권 추첨 및 중식 무료제공
- 관람객 먹거리 풍성(배막걸리, 시식, 다양한 체험관 운영)
- 관람 편의를 위한 완벽한 비가림 및 햇빛 차단막 설치
-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 및 공연 · 문화행사 추진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배사랑 · 농업사랑 · 천안사랑 사생대회 추진
- 원활한 주차관리, 화장실 설치, 농업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다양한 홍보사업 전개(공개방송, TV, 신문, 전문지 등)
-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자원봉사자의 완벽한 지원



5. 향후 발전방향

- 배축제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농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지역사회와 배산업의 발전을 위한 축제
- 농업인과 지역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우수한 다양한 체험의 축제
- 천안배의 세계화, 명품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물론 농업, 농촌 발전의 축제
- 천안배를 사랑하는 전세계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제의 글로벌화 추진

자료제공 : 천안배원에농협동조합



백전 栢田 민속문화제

전통의 놀이며, 기예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중의 하나가 씨름이다.

씨름은 흥미 위주의 전통 문화만은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전승되는 역사서에 앞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고분벽화에서도 씨름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백전에서 민속씨름을 시작한 것이 환갑을 지나서 금년에 67회가 되었다. 백전(栢田)이라 함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의 상백(上栢)과 하백(下栢) 마을의 이름을 합하여 백전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잣 밭 마을을 한자화(漢字化)하여 백전동(栢田洞)이라 하였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천안시 동부 5개면의 면계가 연결하여 있는 곳이다. 병천면의 가전리, 북면의 상동리, 목천면의 운전리, 성남면의 화성리, 수신면의 장산리 등 5개면 5개리의 일부의 경계가 연계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을 흘러 내리고 있는 하천이 백전천(栢田川)이다. 지도상에는 병천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면의 중앙부위를 관통하며 흐르는 북면천 또는 북귀정천과 목천의 용연에서 흘러내리는 산방천(山方川)이 세성산(細城山) 북쪽에서 만나서 어우러진다. 이 부위도 이르기를 아우내 즉 병천이라고 한다. 이 하천이 이어져 동으로 흐르다가 병천들 앞에서 광기천(廣基川)과 만나게 된다. 여기가 바로 유명한 아우내이다. 두 아우내의 사이에 전개되는 곳이 잣밭이며 잣밭 냇가에는 금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자연이 베풀어준 천혜의 오락장이며 씨름판인 것이다. 모래 사장에서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경기가 씨름인 것은 고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60여 년 전 이곳 백전천 변의 백사장에서는 조직적인 씨름 경기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여름철에 냇물에서 놀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로 씨름이 시작된 것이다. 5개면의 어린이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히 거주지별의 면 대항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의욕적인 참여를 권장하며 지속성을 견지케하기 위하여 씨름 경기를 조직화 하였다. 이로부터 백전의 민속씨름 경기가 시작 되었다.

씨름대회의 진행은 연령별 남녀별로 부(部)를 구분하여 실시되었고 면별, 부락별 대항 경기로 추진하여 성황을 이루도록 하였다. 부별로 애기부를 시작으로 하였다.

애기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해당 되었고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까지로 하였다.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중등부와 고등학생들의 고등부가 있었다. 학생 이외의 일반부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자 씨름도 있어서 성황을 이루었다.

초기의 상품으로는 학생들에게 연필1자루, 공책1권이 주어졌다. 이것을 받는 학생들은 대단한 즐거움이었다. 일반부와 부녀부의 상품으로는 양푼이나 냄비류, 술 등의 생활필수품이었으며 점차 발전하여서는 가전제품이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1등에게는 황송아지가 주어지는 대성황에 이르렀다.

초등학교가 면별로 학군이 설치되면서부터는 위에서 밝힌 북면, 목천, 성남, 수신, 병천면의 면 대항 씨름대회는 자연적으로 중단되게 되었다. 이후로는 병천면 가전리 각 부락대항의 경기가 진행이 되었다. 1997년 경부터는 천안시 병천면 거주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씨름 대회로 확대하여 관심도가 크게 넓어졌고 발전하였다. 2008년도부터는 참가 범위를 천안시 일원으로 확대하여 씨름을 잘한다는 씨름꾼들도 참여하게 되어 발전의 도가 높아졌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 전통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여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전통의 놀이며, 기예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중의 하나가 씨름이다. 씨름은 흥미 위주의 전통 문화만은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전승되는 역사서에 앞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고분벽화에서 씨름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각저총이 바로 그것이다. 씨름은 고구려 시대 이전부터 전승이 되면서 청소년은 물론 장년층에도 널리 숭앙되어 온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벽화에까지 새겨진 것을 보면 씨름은 일반적인 유희 이상의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씨름은 전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기가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에는 칼이나 창을 제쳐놓은 다음에는 맨손으로 적을 맞닥뜨렸을 때 서로 붙잡고 쓰러뜨리기 위한 씨름이 행하여 짐은 첩경이요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곳에서 씨름은 발생을 하였고 적을 쓰러 눕히기 위한 기예가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씨름의 발생과정이 되겠다. 이러한 씨름이 오랜 역사 속에서도 면면히 살아남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자료제공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보령 삽시도리 장고도 등바루놀이 돌방

처녀들이 다 모이면 “돌방”을 만든다.

돌방은 놀이하는 날에 처녀들이 화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도 쓰인다. 어린 처녀와 노처녀로 나누었을 당시만 해도 돌방을 두 개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처녀가 없어서 큰 돌방 하나만 만든다.



시 대 근대
소재지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
종 류 기타유적
항 목 비지정문화재

장고도에서는 해당화가 만발한 시기가 되면 “등바루놀이”를 할 처녀들이 모여 좋은 날을 잡는다. 놀이 전날이 되면 처녀들 10~15명은 아침을 먹고 나서 “등바루 놀이터”로 나간다. 이 곳은 앞에 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 해당화가 곱게 피어있는 곳이다.

처녀들이 다 모이면 “돌방”을 만든다. 돌방은 놀이하는 날에 처녀들이 화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도 쓰인다. 어린 처녀와 노처녀로 나누었을 당시만 해도 돌방을 두 개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처녀가 없어서 큰 돌방 하나만 만든다.

돌방은 양쪽으로 둥글게 담을 쌓고 바닷가 쪽으로 입구를 내어 만든 약간 둥근 타원 모양의 방이다. 한쪽 담의 높이는 1m 30cm 가량 된다. 가로 길이는 약 4m 30cm 정도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담과 담 사이의 공간 너비는 1m 90cm 정도이다. 처녀들이 돌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에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돌방을 만든다. 돌방에는 자갈을 주워서 깔아 평평하게 한 다음 그 위에 고운 모래를 펴고 이어서 돌방 좌측 안쪽에 모래로 낮은 단을 쌓는데 이것을 “부뚜막” 또는 조왕이라고 부른다. 그 위에 풀일 할 때 쓰는 유리 어항을 올려놓고 해당화를 꽂아 둔다. 이것을 “조왕을 논다”로 표현한다. 예전에는 돌방 우측에도 부뚜막을 만들었고 그 위에 밥이 담긴 솥을 바구니에 담아 올려놓았다. 놀이하는 날 새벽이 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처녀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화장품과 예쁜 옷을 들고 돌방으로 간다. 가져온 것들을 돌방에 넣은 뒤 해당화와 쥔레나무 가지를 꺾어 돌방을 장식한다.

돌방위에 대나무를 여러개 걸쳐놓고 그 위에 쥔레나무 가지로 지붕을 만든다. 돌방장식이 끝나면 갯가로 나가 굴이나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한다. 한참이 지나 식사 때가 되면 다시 돌방 근처로 모인다.

이때 채취한 굴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너 많이 찍었다.” 혹은 “나 적게 찍었다”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 무렵 처녀들의 부모들이 밥과 갖은 반찬을 가지고 처녀들이 모여 있는 돌방 근처로 찾아와 가장 먼저 찾아온 집의 밥부터 함께 나누어 식사 한다. 이때 구경꾼들도 함께 오는데 그 중에는 총각들도 물론 끼어 있다. 이렇게 놀러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하나씩 선물해 준다. 식사가 끝나면 처녀들은 모두 돌방에 들어가 화장을 하고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는다. 이때는 화장품을 서로 빌어 쓰기도 하는 정겨움이 있으며 치장을 다 한 처녀들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나와 춤을 추며 한바탕 신나게 논다. 한참을 놀고 난 후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면 돌방을 허물어 이듬해에 새로 쌓게 된다.

해가 떨어지면 각자 헤어져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해 먹는다. 근래에는 처녀들의 부모들이 밥과 갖은 반찬을 가져오지 않는 대신 아주머니들이 집집마다 쌀을 약 한 되씩 걸어서 밥을 지어 식사한다. 이 날은 원래 밤새도록 놀아도 상관없다고 하여 아주머니들끼리 한 곳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밤새도록 놀기도 한다. 당시에 놀던 놀이 중에서 까그매와 줌방놀이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이 적어서 돌방 전체를 허물지 않고 한쪽 귀퉁이만 허물고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해에 허물은 부분만을 보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다.

자료제공 : 대전문화원



예전의 돌방을 허문 모습

복원한 현재의 돌방

우리 조상 뿌리 찾기 사업

공주를 탯줄로 하는 저명성씨 바로알기

공주문화원



공주의 조상 뿌리 찾기 사업(우리조상알리기사업)은 공주를 탯줄로 하는 저명성씨들의 고향 바로알기와 전통 찾기 사업으로 공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이버 공주시민 증대와 5도2촌 사업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출향인사들이 조상과 뿌리를 찾아 공주를 방문하기를 기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성씨로 선정되면 전문연구자와 협력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성씨별 책자발간, 출향인을 위한 유적답사를 추진하며, 향후 고향 찾기 축제와 고향방문의 날 등도 구상중이다.

■ 지원대상 성씨(신청 자격)

- 공주의 조상뿌리 찾기 사업에 공감하는 모든 성씨
- 시조, 입향조, 파조가 공주에서 활동한 저명성씨
- 입향시기, 분포비율, 인물과 유적 등이 널리 알려진 성씨
- 재외 향우조직과 종회 활동이 활발한 성씨
- 자체결속력과 의지(사업비 일부부담)가 있는 성씨
- 본사업을 통해 많은 출향인사가 공주를 방문할 수 있는 조직력 있는 성씨

■ 선정 기준

- 주요 유적, 인물, 기록 등 공주관련 자료가 많은 성씨
- 입향시기, 분포비율, 인물 등이 널리 알려진 성씨
- 재외 향우조직과 종회 활동이 활발한 성씨
- 일부 자체경비(책자발간금)를 부담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씨
- 5도 2촌사업과 관련 활용 가능한 성씨

■ 우리 조상 뿌리찾기 사업실적

공산이씨	2009년 9월 19일	경주이씨	2009년 10월 25일
남평문씨	2009년 11월 17일	진주류씨	2009년 12월 19일
동북오씨	2010년 11월 6일	장기정씨	2010년 11월 20일
연안이씨	2011년 10월 22일	천안전씨	2011년 11월 19일

금산문화원

마을풍류전



■ 목적/기획의도

금산문화원 특장사업인 작은축제만들기사업으로 21세기형 대안 마을축제로 기획, 군에서 지원하는 으뜸마을만들기, 녹색관광체험마을 등과 연계하고 마을 단위 문화이해집단과 연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각 마을 문화 자원을 특장화하여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마을 선정

차별적인 이야기와 특산물에 있는 마을,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마을, 작은축제만들기 이해와 추진할 수 있는 문화이해집단 구성 마을, 지속적으로 삶꽃사랑 거점 마을 역할 가능 마을로 선정한다.

■ 행사의 실제

열음굿과 노래(마을시 헌정), 선정된 마을 꽃을 중심으로 한 춤과 노래, 마을노래 함께 부르기(흥악이와 청청이)로 맺어 푸는 마당으로 풍물놀이와 노래로 진행한다.

■ 연출 계획

공연자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하는 공연 즉, 단혀 있는 공연이 아닌 열려 있는 공연을 위하여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즉흥성과 신명성을 만들어가는 신평류문화를 창출하고 각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연으로 유도한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행사

논산문화원



10월 8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논산돈암서원에서 논산문화원이 주관하여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가 재현되었다. 향시 응시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가한 가운데 입덕문 앞에서 황명선 논산시장, 이인제 국회의원, 송덕빈 충청남도의원, 류제협 논산문화원장, 박성기 한학자가 향시 성공과 논산의 화합을 이끄는 문구를 휘호하는 개막 퍼포먼스가 있었다.

전국에서 참가한 향시 응시자들은 녹명소에서 점수를 마치고, 유건과 도포를 착용한 뒤 향시장에 입문하였다. 목사 역할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은 초등부는 사자소학, 중고등부는 격몽요결, 대학·일반부는 '논어에서 문제를 내라'는 시제를 하차한 뒤 개시타고 하였다.

응시자들은 한 시간 반에 걸쳐 정숙한 가운데 진지하게 시험에 임했다. 시관들은 타인과 작측을 하고, 응시자들은 한 두명씩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건양대학교 김문준, 정정일 교수와 김기 한학자가 채점하는 동안 응도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가량 국악 관현악팀 '큰덕어울'의 공연이 펼쳐졌다. 국악 실내악 연주와 판소리, 김미숙 씨의 태평무 등이 이어져 흥은 물론 전통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시관의 엄격한 감독과 정확한 채점 결과, 대학·일반부는 부산 부경대학을 휴학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박민호 씨(24세)가 논산시장상과 상금 70만 원을 차지하였다. 장원에게는 각각 교지가 전달되었으며 대학일반부 장원 박민호 씨는 가마를 타고 장원급제 행렬로 많은 환호와 축하 박수를 받았다.

조선시대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하였고, 33명을 선발하여 합격자를 냈다. 이들은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고, 대과에 합격하면 비로소 벼슬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다고 한다.

향시장을 찾은 많은 가족단위 시민과 관광객은 호패와 마패도 만들어 보고, 서당체험, 전통혼례 체험, 다도 등 조선시대에 온 듯 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겼다. 특히 삼행시 백일장, '암행어사 출두야'는 많은 분들이 응하여 또 다른 과거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 향시장을 연출해 보면서 선조들의 모습을 엿보는 교육 현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향시는 공주목에서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예학의 종장 사계 김장생 선생의 위패를 주벽으로 모신 유서 깊은 논산돈암서원에서 개최되어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행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본받고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논산의 유교 문화를 꽃피우는 단초가 되었다는 평이다. 특산물 축제가 일색인 논산에서 하나의 문화 축제로 승화 될 가능성이 보인 본보기가 된 행사였다.

당진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당진문화원의 늘푸른악단(단장 이상욱)은 당진지역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밴드로 나이를 잊은 왕성한 활동과 봉사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많은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2008년 말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에서 어르신문화학교의 일환으로 늘 푸른악단을 구성하였으며 그 이듬해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늘푸른악단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축이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악기를 다루고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던 단원들은 그 열정과 실력으로 그 어느 밴드 못지않은 음악을 빚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악단은 성실함과 자부심으로 '늘푸른악단'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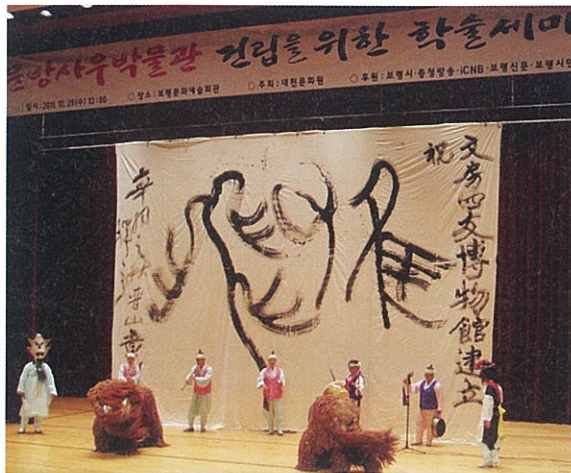
2009년부터 '늘푸른악단'은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청중을 위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의 전통5일장을 찾아 공연을 펼친 장날음악회는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2010년부터는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한 음악나눔 봉사를 기획하였다. 당진지역의 수많은 노인대학에서 연주를 하며 만학도 어르신들의 즐거운 벗이 되어주고 있으며, 부부와 공무원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하여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였다.

2011년에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여 약 20회의 음악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노인복지관, 아셀복지원, 평안마을, 참사랑복지재단 등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 있으며, 불편한 몸을 일으켜 연주곡에 맞추어 춤사위를 뽐내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단원들은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으며 눈시울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내년에도 더 왕성한 활동으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과 함께 음악의 향취에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가는 곳마다 작은 축제의 마당을 열 계획이다.



문방사우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대천문화원



충남 보령시 대천문화원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0월 26일(수) 오후 1시부터 '문방사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이시우 보령시장을 비롯해, 류근찬 국회의원, 김정제 시의장,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 회장(대목장)의 축사와 함께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문방사우 박물관 건립과 지역발전"이라는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권영민 서울대 교수가 "문방사우 박물관 건립의 의미와 필요성", 이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이 "한국공예문화 발전과 문방사우", 김삼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이 "무형문화재 활성화 정책과 문방사우", 황의호 대천여고 교장(향토사학자)이 "보령 벼루공업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방사우에 대한 현대적 활용분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성태, 이상현 작가의 '캘리그래프스트(Calligraphist) 퍼포먼스'와 한지장 장용훈(중요무형문화재 117호), 모필장 김종춘(울산시 무형문화재), 먹장 유병조(경북도 무형문화재), 벼루장 김진한(충남도 무형문화재) 장인이 문방사우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있었다.

임기석 대천문화원장은 "보령지역은 문방사우 가운데 하나인 남포벼루의 원산지로서 그 정통성을 기반으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복청사자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송순섭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충청방송을 통해 녹화 방영되었다.

서산문화원

윤곤강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현대문학의 선구자인 윤곤강 시인 탄생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시혼·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지난 11월 26일 서산문화원 주최로(이준호 원장)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김환성 서산시의회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서산출신 출향작가(이생진, 윤주홍, 조재훈, 권순악, 한수, 김문중, 박무웅 등)들의 시낭송이 마련되었으며, 윤곤강의 시 「나비」를 작곡해 노래로 나비를 만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곤강 시인의 현창을 위해 노력한 윤찬구 전 의장과, 박만진 시인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관내 문학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시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윤곤강 시인의 문학정신이 계승 발전되어, 훌륭한 젊은 문학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1회 기벌포예술제 개최

서천문화원

■ 목적·기획의도

기벌포예술제는 2001년 기벌포전통문화학교(대표 홍승권)가 문화관광부 시행 전국 100대 지역문화진흥프로그램에 응모, 입상한 것을 계기로 군내 14개 문화예술단체가 모여 '서천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기벌포전통문화학교가 주최하고 서천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면서 시작된 예술제다. 대회 첫해에는 '2001년 지역문화의 해'란 주제로 뉴스서천의 '지역문화토론회' 주부독서회의 '문학의 밤', 기벌포전통문화학교의 '젊음의 손짓', '붓·뜯 창립전', 극단 기벌포의 '밥' 공연, 서천중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의 '벵 바위전' 하늬회의 '하늬전', 서천연서회의 '연서전', 호선도에·이병윤 도자의 '도자전', 수련회의 '꽃꽃이전', 서예원의 '서천의 소리와 춤'으로 우리 지역 유일의 문화예술축제의 막을 연지 10년이 되었다. 제3회 예술제부터는 서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기벌포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서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얼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벌포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기간 및 대상

2011년 12월 9일(금) ~ 17일(토) 9일간

서천군내 예술단체, 예술가, 서천군민 예술활동인 누구나

■ 진행과정

기벌포예술제의 시작은 9일 첫날 전시회 테이프컷팅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공연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은 영화상영이 준비되어 있고 전시작품은 서예, 서양화, 한국화, 설치미술, 꽃꽂이, 근대생활용품, 짚풀공예, 공작선, 아성대장간, 하늘바라기솥대공방, 두메산골물듬이, 백화초농원, 문촌 짚공방, 한산모시공예품, 사진, 시화전, 냇킨아트, 갈빗공예, 카툰공모전(선거관리위원회) 작품 등을 전시하고 공연행사는 한량무,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시조, 판소리, 자진뱃노래, 전통무용, 중창, 비보이댄싱 등이다.

■ 기대효과

서천을 대표하는 주민참여형 지역예술축제로 발돋움하여 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 향후계획

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로 키워,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배출되고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환문화원

제3회 봉선홍경사 아타파구신 도량제



성환문화원(원장 송용삼)은 2011년 11월 4일 국보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앞 주차장에서 제3회 봉선홍경사 아타파구신 도량제를 개최하였다. 과거 고려광종 및 인종때에 국가와 백성의 번영을 꾀하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국가적 행사로 거행되었던 아타파구신 도량제를 일부나마 재연하여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확립, 향토문화계승차원으로 앞으로 있을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국보7호)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는 사업 중 일부로 앞으로 횡수가 거듭되어 향 후 국태민안, 양재기복의 성격을 지닌 고려시대 문화, 역사, 종교 등 종합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연기의 터전 뿌리를 찾아서 上’ 발간

연기문화원



■ 사업목적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삶의 터전으로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씨족사회가 남아있는 마을이 많다. 조상에 대한 흔적, 즉 고택, 제사, 정자, 서원 등의 건축물과 인물, 또 그들이 교우한 사람들, 생활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재조명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 건립으로 사라질 읍·면의 기록도 연계조사하여 역사속에 묻히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사업기간

2011년 3월 1일 ~ 12월 31일

■ 진행과정

세종시로 잊혀진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성씨를 조사하여 책으로 편찬했다. 세부 조사내용은 집성촌 성씨에 대한 조사, 과거 급제자와 인물조사, 입향시기와 인구분포 조사, 조상들의 유적조사, 자료의 조사 및 수집으로 이뤄지며 자료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책의 판형은 국배판(A4)으로 제작한다. 그리고 제작된 책은 읍면동, 도서관, 각급학교, 전국문화원, 각 마을에 배포한다.

■ 기대효과

주민들에게는 애乡심을 고취시키고 학술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역사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잊혀졌던 조상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발전방향을 보여줌으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없어진 읍·면의 이주 흐름을 알 수 있고 나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조상의 소중함과 경로효친 사상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청명한 하늘과 국향이 어우러지는 추사고택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규모 서예인의 잔치 제22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호대회

예산문화원



추사의 예술혼 다시금 느껴보는 계기

“추사의 정신과 예술혼 계승하다”

전국의 서예인 600여 명 실력 겨뤄, 장원에 한글부문...김선경 학생

화창한 가을 날씨 아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서생 600여명이 신암 추사고택(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소재)으로 모여 추사의 정신과 예술혼을 계승했다.

제22회 추사 김정희 선생 전국회호대회와 제13회 전국청소년회호대회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열렸다.

일반인 부문에서 최고령으로 추사체에 출전한 87세의 한종석(대전시) 응에서부터 최연소 20세 이정화(전남 광양시) 씨까지 대회에 참가한 연령층의 폭도 넓었다.

대회는 9일 충남도립국악관현악단의 제향음악 속에 추사를 추모하는 제향으로 시작됐다. 이날 제향에는 최승우 예산군수, 김석기 군의회의장, 박철원 사단법인 추사 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장, 김시운 문화원장 등이 맡았으며, 전용국 예산문화원 부원장, 박성묵 예산역사연구소장 등이 도왔다. 전국에서 모인 과생, 지역주민, 출향인 등 1,000여 명도 함께 추모했다.

과장은 서예정신을 이어가는 오늘의 후예들을 보시라는 뜻 추사 선생의 묘 앞에 설치돼 ‘의미 있고

보기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익산에서 과생의 가족으로 함께 한 이중호 씨는 "충남 예산은 추사 김정희 선생과 윤봉길 의사와 같은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러한 의미 있는 대회도 개최할 수 있다"며 "예산은 조상 덕에 후손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고을"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과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발표된 명제에 따라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서예인들의 경합이 시작됐다.

회호시간은 단 90분, 주어진 화선지는 단 두장 뿐이다. 때문에 과생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온 마음과 정신을 붓 끝에 담는다.

매년 "시간이며, 종이제한, 엄격한 통제 등 너무 야박하다"는 과생들의 불만도 있지만, 때문에 추사 회호대회 입상자들의 실력이 더욱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대회의 위상과 권위도 국내에서 최고다.

마침내 과생들의 경합이 끝나고 심사위원 22명이 4시간 이상 심사숙고한 결과, 올해의 장원(국무총리상)은 한글부문에 출전한 김선경(전남 강진) 씨가 차지했다.

이어 차상, 차중, 차하 입상자들이 발표됐고, 과생들은 추사의 예술혼과 정신을 계승했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안고 내년을 기약했다.

한편 전날 8일 열린 제13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회호대회에는 219명이 참가했으며, 유성환(서울 대신고 2) 학생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추사회호대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이다. 올해도 심사위원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소수의 인원으로 나눠 서로 모르게 진행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대회기간 동안 어떠한 외부와도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압수하는 강수를 쓰기도 했다.

대회 입상작은 12월 중에 예산문화원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추사회호대회 이모저모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인기”

우리 고장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올해 추사회호대회 기간 동안 추사고택 인근 대회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돼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과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추사기념관에서는 고향을 지키며 40여 년간 소목장으로 추사 선생의 작품만을 고집하며 장인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해초 박학규 선생의 서각전시회가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시회에는 해초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돼 서각을 통해 추사의 또 다른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됐다.

더불어 해초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며 서각을 통해 추사의 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있는 예산서각회(회장 오윤석) 회원 30여명도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작품은 회원들의 공동작을 비롯해 40여점이 전시됐다. 특히 전시장 주변에 해초 선생과 회원들의 도움으로 공동 제작한 옛날 전통 가마와 사인교 교좌를 전시해 대회를 찾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회원들은 또 옛날 전통혼례복을 입고 가마를 탈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마련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많은 사랑과 함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다도·민요교실 학생들도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선보였다.

민요교실 학생들은 대회 심사기간 동안 톱툰이 흥겨운 민요와 춤으로 과생들의 긴장감을 달래 주었으며, 다도교실 학생들도 다도체험행사와 함께 대회 참석자들에게 각종 우리 전통 차와 함께 다식, 전통한과 등을 대접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연, 추사 선생 마스코트였다. 관복과 개나리 붓짐을 맨 2명의 추사 마스코트는 대회장을 누비며 때로는 근엄하게, 때로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예산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예산농금조합(조합장 권오영)의 도움으로 대회기간 중 예산향토사와 시식회가 마련됐고, 농가에서는 올해 수확한 사과를 저렴한 가격으로 참가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며 예산사과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더불어 사과와인, 잼 등 예산의 '추사항' 제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전국에서 모인 과생들과 가족 등 대회 참가자들의 허기는 예산군 신암면새마을협의회(회장 백종석)가 맡았다. 대회기간 중 협의회 회원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국밥과 떡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산의 훈훈한 인심을 함께 전달했다.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

재활용 새집 달아주기 사업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에서는 2011년 7월부터 관내 학생들을 대상 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재활용 새집 달아주기 사업을 벌였다. 곡식을 털고 남은 짚과, 목제품을 만들고 남은 나무찌꺼기를 이용한 파티클 보드를 이용하여 새집을 만들고 아산의 산에 달아주는 행사로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시간활용의 기회를 갖게 하고 환경과 동식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7월부터 연인원 12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온양문화원 짚풀공예반 어른선들과 함께 짚을 이용한 새집을 함께 만들고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 김상섭 지회장과 함께 파티클 보드를 이용한 새집을 만들었다. 둘째 주 토요일에 새집을 만들고 넷째 주 토요일에 새집을 달아주는 시간계획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한 달에 2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을 활용,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집을 만들 수 있었으며 만든 새집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달아주게 하여 눈으로만 보는 환경체험이 아닌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집은 관내 주요 공원, 산, 학교 등에 달아주었고 학생들이 새집을 관찰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새집에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나의 작은 실천이 자연과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환경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나면서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1월에는 그동안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서산 천수만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텃새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등의 철새도 관찰하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생활속의 문인화(文人畵)! 사군자(四君子) 수업~

그 소박한 美를 찾아서



동양회화의 한 획을 가름하는 필(筆)과 묵(墨)의 향연, 문인화(文人畵)·사군자(四君子)는 시(詩)·서(書)·화(畵) 삼위일체의 표현 양식으로 그 경지는 지극히 정신적이다.

예술에 대한 다소 심도 있는 이해의 폭을 차치하더라도 그 어떤 창작적 행위는 각박한 현실의 세태 속에 현대인들에게 자칫 부재(不在)될 수 있는 정신의 자유로움과 삶에 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사군자 - 매·난·국·죽 수업에 있어서 처음 몇 획으로 시작되는 묵난화(난초그리기) 등의 작업은, 고도의 기술성 보다는 내면의 힘을 빌려 밖으로 벗어나는 우리네 일상의 소박한 일탈(정신의 자유로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라도 먹향의 묘미를 경험한다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매화도의 일가를 이룬 19세기 조선의 문인화가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은 「글씨와 그림이란 노력하여 배운다면 취득할 수 있는 수예(手藝) - 손의 예술」라고 주장하였다. 즉 서화(書畵)란 남녀노소 또는 사회적 직급 고하를 떠나 개인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가장 큰 손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창작 행위는 예나 지금과 한가지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박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생활의 분주함 속에 감로수 같은 마음의 위안과 정서적 행복감을 선물처럼 선사한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에서 시작된 사군자 수업과정은 마음의 휴식처럼 다가온 가장 열정적인 또한 가장 소박한 우리네 평범한 아낙들의 행복한 일탈이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화선지 위로 표현되는 매·난·국·죽 그림 속에 허허로운 우리네 일상이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 심신의 여백을 돕는다.

좀 더 나아가 이것의 뿌리가 넓게는 동양의 노장사상(老莊思想)으로 출발한 담박 겸소한 정신의 생명성과 연결되고, 좁게는 우리네 개인 내면에 지나친 가식이나 약삭빠름을 지양하는 무욕(無慾)의 뜻과 상통한다면, 우리 문화원의 소소한 이 작업은, 선조의 뜻과 기운을 빌어 그 맥을 잇는 예향도시

내 고장 내 문화 지킴이의 역할에 충분히 일조한다고 하겠다.

사군자의 덕목은 시류(時流)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기상과 강한 의지의 진실성이다. 이러한 풍류 등을 예로부터 선조들은 사랑채에 모여 서화로 즐기며 담론하고 교우하였다. 사랑(舍廊)과 문방(文房)이 선비들의 방으로 통하고 지필묵연(紙筆墨硯)이 문방사우(文房四友) 즉 문방의 벗으로 의인화 되어 사시사철 푸른 대가 화선지 위로 기상을 뽐내고 난초의 은은함이 맑은 향기로 고졸한 미를 내어 보였다.

이제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의 사군자 동아리가 사랑채에 모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각자의 피나리 붓짐 하나씩을 내려놓고 높게는 사대부 선비 정신을 임화하며 낮게는 우리네 아낙의 소박한 내면의 진실성과 꾸밈없는 정서를 쏟아 묵화로 옮겨낸다. 이것은 부족하나마 가장 소박한 생활의 미학적 재발견이며 각자의 생각과 정서를 사물에 의지하여 그려내는, 그래서 일상의 고단함을 분출해 내는 휴식 같은 마음 속 그림의 첫 시작이다.

즉, 정신의 연약함을 내면의 양식으로 보완하고, 일상의 고단함과 번거로움을 여백의 美 - 즉 삶의 정서적 여유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먼 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의 문화사업 사군자 사랑방은 아주 소박한 美를 찾는 그러나 아주 행복한 생활의 안식처이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四君子 사랑방 일정 - 매주(금) 10:00~12:00

출강 : 文人畫家 타래 한복희 [천안미술협회문인화분과, 금화서화 학술학회 국장]



청양문화원

방학을 청양문화원 문화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청양문화원에서는 청소년문화학교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열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활동과 협동성을 키우고 통합적인 활동으로 두뇌발달과 함께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 음악난타교실(강경예 선생님) |

사물놀이 악기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냄비, 패트병, 도마 외 흥겨운 우리가락을 연주하는 것이며 어린이들에게 팀워크를 통한 협동심과 유연성, 리듬감을 익힐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취감도 모에도 도움이 된다.

| 미술교실(명진 선생님) |

미술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으로 손의 운동으로 두뇌발달과 함께 창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 폼아트교실(김정하 선생님) |

폼아트는 폼보드 압축스치로폼을 이용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말하며, 폼보드에 예쁜색감과 무늬를 오려붙여 창의적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성취감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 종합공예교실(김애정 선생님) |

콜크클레이, 비누클레이, 나무공예, 건축공예를 포함한 종합공예 활동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보고 느낄 수 있어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 재즈댄스교실(윤금선 선생님) |

재즈댄스는 다양한 형식의 재즈반주에 맞추어 추는 모든 춤을 말하며, 스트레칭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며 적극적인 성격을 기를 수 있어 좋은 스포츠이다.

| 종이접기교실(이은희 선생님) |

간단한 재료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창의력 증진 및 집중력향상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청양문화원은 동계문화학교와 하계문화학교로 나뉘어 청소년들에게 알찬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뿐만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문화학교 활성화 위해 내년부터는 음악줄넘기와 같은 신설 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태안문화원



■ 주 최 : 태안문화원

■ 후 원 :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 태안군

■ 사업내용 : 태안군 거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4인 가족기준 월소득 415만원 이하)에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교육, 전통문화교육, 감수성훈련, 숲길산책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박2일 문화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와 교감, 체험과 놀이를 통한 자연생태의 중요성과 가족애를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증진시킨다.

■ 프로그램

- 1일차 : 문화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고창읍성 밭기
판소리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판소리박물관
온천욕과 아쿠아리움체험으로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는 변산아쿠아스파
- 2일차 : 생태안내자와 함께 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내소사 전나무숲길 산책
보물 291호 내소사 대웅보전과 장식무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꽃창살무늬 탐방
지방동물원으로 유일하게 106종 700여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동물원 체험과 관람

■ 참가인원 : 560명



홍성문화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같이 가는 문화원



변변한 문화 공간 하나 없던 홍성에 문화원의 간판을 내건 것은 1954년 3월. 2005년에는 남산공원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고암리 689-4번지에 신청사를 신축해 옮겼다. 역제방죽의 사계와 함께하는 신청사는 전국 문화원 가운데 미관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인다.

홍성문화원은 개원 이후 지역문화의 산과 역할을 자임했다. 연중 각종 전시활동과 음악회, 발표회 등이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취미생활강좌 및 문화예술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문화의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다. '홍주향토문화연구회'를 부설로 운영하면서 홍성 향토사의 근간이 되는 사십여 권의 책들도 펴냈다.

| 홍성문화원의 현재 |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성문화원에서는 1층 공연장을 '화요상설무대'로 꾸미고자 전력을 다했다. 스피커나 앰프 등의 음향시설을 보강해서 최적의 공연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더불어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실 또한 마련하는 등 문화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011 홍성문화원 |

전통문화와 예술발전의 창달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년교례회',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야생화 전시회', '옛사진 전시회', '전통 성년식 재현', '거리영화제', '우리문화 알아보기', '여름전통문화학교', '만해제 추모다례', '홍성문화 발간', '목요영화 상영', '찾아가는 영화상영', '홍성내포문화축제', '남산과 보개산의 솔바람길 이야기 발간' 등 향토민속 발굴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이 시대 마지막 변사인 신출 선생을 초빙하여 무성영화인 검사와 여선생을 상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자체 기획전인 '충남서예가협회전', '조선레 매듭전' 등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 찾아가는 영화상영 |

그동안 목요일영화를 위해 구입한 DVD 300여 편을 일주일에 한번 상영하고 나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마을회관, 소규모 학교 등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

| 문화학교 강좌 |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학교에 지정된 것이 1998년으로 현재 9개 강좌에서 수강생들이 21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만지고 느끼며 만들어 보는'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다양한 문화교실 강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 2011년 공모사업 |

홍성문화원은 군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운영되다보니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 등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5건이 선정되었고, 현재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

실시된 사업은 201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홍성문화나눔봉사단',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전운상 장군과 해골선이야기', 2011 문예진흥기금 '여름농촌민속공예학교',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 2011 농어촌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단오절맞이 앗은곳 한마당' 등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들어서서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문화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높은 문화사업들을 연구 개발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 논산문화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지난 9월, 논산시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0월부터 '예향충만! 오감만족! 논산역사문화교실'을 연말까지 운영하였다. 논산시민을 비롯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등 900여명이 참가하였다.

1회차는 논산돈암서원에서 류제협 논산문화원장의 논산 문화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예절사로부터 생활실천 예절 교육 및 다도를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논산명재고택에서 고택 '큰댁어울' 팀의 국악공연 감상과 악기에 대하여 배워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차는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강경의 임리정과 팔괘정, 노성의 궐리사, 종학원 등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안내 답사를 통해 예향을 느끼고 배우며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논산의 역사와 문화와 생활 예절을 담은 교재를 제작 배포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대천문화원 |

사무국장 인사발령



2011년 1월 17일자로 대천문화원은 공식적으로 비어있던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하여 인사발령 하였다. 새로이 채용된 임성빈 사무국장은 대학교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으며, 한국미술협회 및 한국디자인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원 감사 선출

2011년 2월 25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복근채 감사의 후임으로 김우인(전 보령경찰서과장)감사가 선출되고, 전장호 감사는 유임되었으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문화원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의 인사말을 했다.

민속대제전 종합2위



제21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청양 지천백세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종합 1위는 청양군, 우리 보령시(단장 최의식) 선수단은 종합 2위, 서산시는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날 출전에 앞서 이시우 보령시장과 문화원장의 격려가 있었다.

제7대 대천문화원 林基錫 現 원장 당선

5월 4일 치러진 제6대 대천문화원장 선거에서 임기석 현 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선거권이 있는 회원 261명 중에 210명(투표율 80.46%)이 참여한 투표에서 임기석(현 문화원장) 씨는 190표(90.48%)를 획득, 20표(9.52%)를 얻은 임인식(꽃집운영) 씨를 170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원장 선출에 이어 김석원, 박정희 씨 등 2명의 부원장과 13명의 이사를 지명했으며, 4명은 유임됐다.

서천문화원 수상 안내

| 서천문화원 |

지장병 회원이 10월 4일 부여에서 열린 제38회 전통문화 내포제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에서 을부 금상 수상, 김호자 회원은 12월 5일 청와대(이명박 대통령) 노인문화봉사 훈장(표창장) 수여 받았다.

세종시민대학 성료

| 연기문화원 |



연기문화원이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에 대비 지난 7월부터 매주 실시해 온 「세종시민대학」이 주민들의 폭넓은 호응과 함께 알찬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은 지난 7월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빙, 강연을 듣는 「세종시민대학」을 실시했다.

강좌는 「명품 세계 시민의 덕목」(최호택, 배재대 교수), 「세종시의 성공조건과 과학벨트」(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장), 「국가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이창기, 대전대 교수), 「싱가포르 경영학을 통해 본 세종시의 비전과 전망」(천주옥 창의력 연구소 소장) 등 세종시의 발전방향과 명품 도시에 사는 시민의 덕목과 자세 등에 대해 강연이 진행됐다.

지난 12월 1일에는 그동안 「세종시민대학」 강좌에 꾸준히 참석한 137명의 지역 주민 및 연기군 공무원들에게 시민대학 수료증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었고, 특히, 총 20회의 강좌에 한번도 빠지지 않은 31명의 주민에게는 성실상(개근상)도 수여했다.

시민대학 수료증을 받은 참석 주민들은 “강의 내용이 유익했고, 무엇보다도 세종시민의 역할과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별자치시민의 긍지도 함께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2011 전국 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 은상 수상

| 온양문화원 |



제16회 농업인의날 기념 2011 전국 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에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회장 박용선)가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농업인의 날 기념 전국 농어업인 두레품물경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는 각 시도 문화

원의 자체 경선을 거쳐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 전통문화의 상징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총 8개팀 참가로 열띤 기량을 겨뤘으며,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는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은상을 수상하였다.

회원 50여명으로 이루어진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는 낮에는 농사일에 바쁘고 연습할 시간이 녹록치 않아 밤에 한자리에 모여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여 값진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

박용선 회장은 “각 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무형문화재 참가팀을 비롯 쟁쟁한 풍물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상한 것이라 이번 수상이 더욱 값지고 빛이 난다”며 “회원들의 화합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연습한 노력이 이번 수상의 진정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양문화원 임효식 원장 취임

| 청양문화원 |



7월 27일 제5대 임효식 원장이 임원진과 함께 칠갑산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를 드리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임효식 원장은 지난 8년 동안 청양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온몸을 불태우신 제4대 정재권 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미력하나마 문화가족간의 화합된 모습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토문화자료 기증캠페인

| 태안문화원 |



지역의 전통문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사라져 가는 문화자원을 복원하고 계승·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향토문화자료 기증캠페인을 연중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수집 품목으로는 옛 생활도구 또는 물건, 태안지역과 관련된 문집 또는 족보, 고지도, 고서적, 행정자료, 사진 및 기록물, 태안 지역의 전래, 풍습, 민요, 전설, 속담 등 태안지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개인이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훼손될

위기에 있는 생활문화자원, 처리하고자 하는 옛 물건 등을 기증받아 문화원에서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보존하고 향후 향토박물관이 개설되면 기증자 정보를 기재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72품목 140여점이 기증되었으며 기증자에 대해서는 기증서를 발급하고 기념촬영 및 신문보도를 통해 홍보중이며 향후 기증자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앞으로도 가정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방치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지역의 귀중한 생활문화자료들을 기증을 받아 소중하게 보존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프로그램상 수상

| 홍성문화원 |



홍성문화원(원장 전용택)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1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식에서 우수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전국 227개 문화원 중 상위 15%에 해당되는 문화원을 선정하여 종합경영부문 대상 1곳, 우수상 3곳을 시상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2011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홍성문화원은 우수프로그램상(홍성내포축제)을 수상했다.

지난 9월 종합경영부문에서 상위 15%에 선정되어 최종심사까지 올라갔지만 담양문화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홍성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문화알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



충청남도지회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지방문화원 사무직원교육	일시 : 7월 6일~7월 8일 대상 : 도내문화원직원 장소 : 제주문화원	새로운 문화소통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연계를 통한 문화컨텐츠의 활용법을 알아보고 교육을 통한 문화 창출의 기회 마련
2 충청남도 시낭송회	일시 : 11월 19일 장소 : 금산다락원 인원 : 150명	시, 음악, 미술, 춤이 한데 어우러진 시낭송회를 통하여 충남의 문화 진흥 및 도민의 문화향수권 충족
3 지방문화원 활성화워크숍	일시 : 11월 23일 대상 : 도내문화원직원 장소 : 수원문화원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내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실시. 워크샵 및 수원화성 방문
4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일시 : 12월 2일(시상식) 수상자 : 총 4명	향토연구 활성화 도모와 향토사가 독려,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논문공모 및 시상
5 충남문화 15호발간	일시 : 12월 수량 : 600부	충남도내 문화원 및 충청남도지회의 연간 사업현황 및 활동상황 및 문화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



1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교육 2 충청남도시낭송회 3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교육 4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5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6 지방문화원 활성화 워크숍



2011년 도내문화원 활동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국안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
주최: 공주문화원 주관: 본



공주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公州文化」 발간	발행일 : 1~12월 발행부수 : 2,900부 (격월간 연 6회 발간)	국내 및 해외의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지역인사, 문화가족 대상으로 지역소식 수록 발간 배포
2 향토민속발굴 사업 「공주의 전통마을」 제10집 발간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공주관내 읍·면·동의 토속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18개 전통마을 선정
3 우리조상알기 사업 (뿌리찾기 사업)	일 시 : 연안이씨세미나 (10월22일) 천안전씨세미나 (11월19일) 장 소 : 공주문화원 강당 외 참 석 : 500여명	공주를 탯줄로 하는 저명성씨들의 고향바로 알기사업 학술세미나 → 유적답사 → 성씨별 책자발간
4 지역문화학교 운영	일 시 : 3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강좌수 : 15개 과목 참 석 : 600여명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 국선도, 풍물, 민요, 한국무용, 시창작, 서예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오카리나, 사진, 가곡, 닥종이, 요가, 댄스스포츠 등 15개 강좌 운영
5 청소년 및 시민문화 유적답사	일 시 : 4월~10월 장 소 : 진해, 부안, 고창, 합천 참 석 : 300여명	공주시민대상 전국의 문화유적지 답사 (진해, 부안, 고창, 합천)
6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예인촌)	일 시 : 1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초청 (년6회 정기공연)
7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일 시 : 4월 21일~30일 장 소 : 소망공동체, 누리재활원, 공주영명고등학교 참 석 : 1,300여 명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각급 학교 및 복지시설 4~5곳 방문)
8 효사상 선양 학생백일장	일 시 : 5월 27일 장 소 : 공산성 쌍수정 광장 참 석 : 600여 명	효와 공주사랑을 주제로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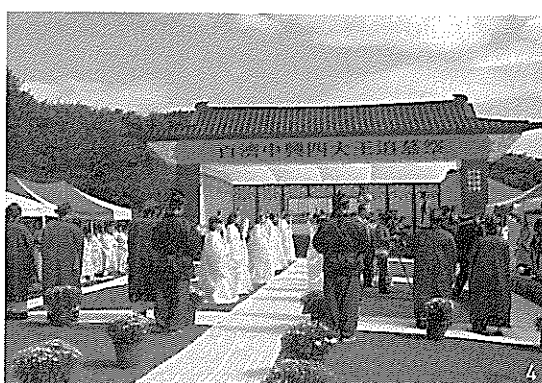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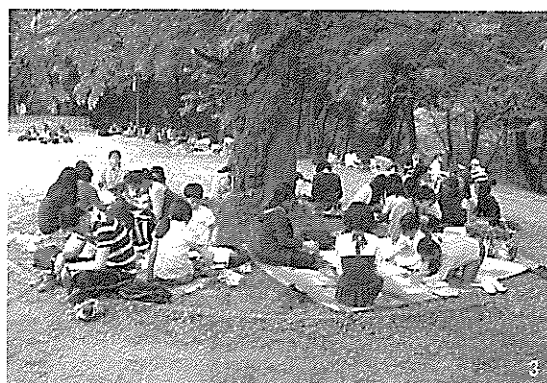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향토작가 초대전	일 시 : 4월, 11월 초대작가 : 김명태, 김배희 장 소 : 공주문화원 전시실	공주출신 향토작가 초청 전시회(2회 개최)
10 충남민속대제전 참가	일 시 : 5월 20일 장 소 : 청양 지천백세공원 참 석 : 50명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공주 대표로 출전 충남도민 화합의 장 마련
11 문화원특성화사업 (「공주문화유산 도록제작」 발간)	발행일 : 12월 중 발행부수 : 1,000부	공주문화유산 도록제작
12 명사와 함께하는 공주여행	일 시 : 5월~10월 장 소 : 공주문화원 참 석 : 1,000여명	명사초청 강의 초청명사 : 박동규, 임진모, 허영자, 김정음, 최석원, 이준관, 이견청, 조석준 (총8회)
13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일 시 : 연중 참 석 : 30명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밭두렁」 동아리운영 각종 축제참가 및 학교방문
14 도내문화원장 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	일 시 : 5월 11일~20일	도내문화원장 해외역사문화 견학, 답사
15 제57회 백제문화제 백제혼불채화 - 봉송 - 합화	일 시 : 9월 16일 장 소 : 연미산 및 공주시 일원	제57회 백제문화제 서막을 알리는 백제혼불채화 - 봉송 - 합화
16 제57회 백제문화제 사대왕추모제	일 시 : 9월 18일 장 소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백제중흥사왕추모제

공주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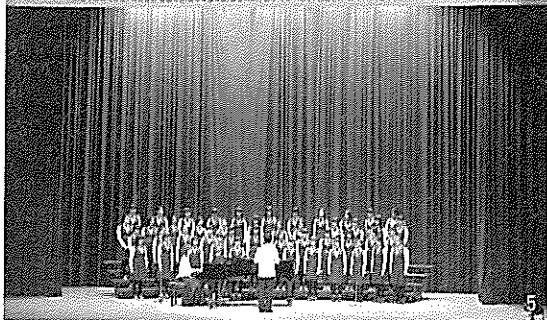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제15회 만희복지 생활지원사업	일 시 : 10월 20일 장 소 : 공주문화원 수혜자 : 30명	불우이웃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
18 백제역사아카데미	일 시 : 8월~10월 (총14회) 장 소 : 공주문화원	백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 및 이해를 위한 「백제역사아카데미」 특강
19 문화예술기관문화 학교운영사업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일 시 : 8월~12월 장 소 : 공주문화원	청소년의 문화예술 관련 진로진학 모색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 내 친구 채플린(학생연극동아리)
20 독서문화운동지원	일 시 : 12월 장 소 : 우성면 봉현리, 정안면 고성리	농촌 소외계층에 도서지원 및 독서문화



공주문화원



3 백일장



- 1 명사와 함께하는 공주여행-임진모
- 2 문화유적 답사
- 3 백일장
- 4 사왕추모제
- 5 예인춤악회
- 6 우리문화순회공연
- 7 향토작가초대전

금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금산의 민속 발굴	「진악산 마을이야기」 발간 조사지역 : 금산읍 일시 : 1월~12월 산성 술래길 찾아서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군 금성면 「진악산 마을이야기」 발간 금성산 술래길 찾아서
2	문화학교 운영	일시 : 3월~8월 장소 : 금산문화원 강좌수 : 4개강좌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 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3	금곡서회 지원사업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참여인원 : 40명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4	창현회 지원사업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참여인원 : 20명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한국화 전시회 개최
5	풍각쟁이 지원사업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참여인원 : 20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6	산꽃축제	일시 : 4월 23일~24일(2일간) 장소 : 군북면 산안리 참여인원 : 30,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 구성
7	금강민속축제	일시 : 7월 30일(1일간) 장소 :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참여인원 : 20,000명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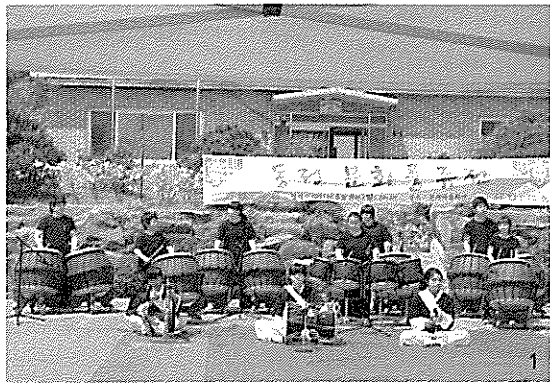
금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8	금산풍물축제 일시 : 12월 31일 장소 : 금산군 신대리 (금산인삼관광장)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참여인원 : 20,000명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 종소리, 쫓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등
9	삶꽃문화사랑 일시 : 3월~12월 장소 : 금산군 일원 참여인원 : 200명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10	진악풍류전 일시 : 6월 18일 장소 : 금산읍 보광사 참여인원 : 20,000명	- 진악풍류전, 풍류여행, 생태전시회 - 자연과 문화 마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생태 문화관광축제
11	금산문화예술축제 일시 : 11월 19일~23일 장소 : 청산아트홀 참여인원 : 3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제로 미술, 서예 전시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12	전시회 일시 : 11월 19일~23일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금동인(미술), 금목화(서예)전시회
13	금산민속연보존회 일시 : 1월~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화 를 홍보 하는 장소 참여인원 : 20명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4	농바우꼬시기보존 일시 : 1월~12월 대상 : 농바우꼬시기보존회	농바우꼬시기보존회 공연
15	물페기농요보존 일시 : 1월~12월 대상 : 물페기농요보존회	물페기농요보존회 공연

금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6	산꽃시 시사랑 발간사업 산꽃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수록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17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좌도시동인회 작품 및 특집 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18	실용음악 보급사업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그룹사운드 「파랑새」
19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나아내풍물단 참여인원 : 40명	각종축제 금산풍물굿 공연
20	토리풍류 보급사업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21	청소년토리풍물단 일시 : 1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인원 : 40명	- 사물놀이 토리풍류회 -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페 풍물단 운영 및 지도
22	문화소모임(동아리) 활동 일시 : 3월~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 향수권 신장
23	충청남도시낭송회 일시 : 11월 19일 장소 : 청산회관(8층) 참여인원 : 100명	시, 그림, 풍물이 있는 신평류, 삶꽃과 함께하는 시와 양상블, 소리꾼 장사익과 금산시인들의 인영으로 태어난 시와 노래

금산문화원



1.23 삼꽃문화사랑

3

논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2011신년교례회	일시 : 1월 3일 14:00 인원 : 200여 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다과회 등
2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탐방	기간 : 1월~12월 인원 : 800여 명 장소 : 돈암서원, 논산명재고택, 중학원 등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고장의 아름다움과 유서 깊은 문화 유적지를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버스로 답사
3 사진으로 보는 논산 100년 공모전	기간 : 1월~12월 인원 : 20여 명	은진, 노성, 연산군을 합하여 논산군이 된 지 100년 (2014년)을 맞아 1900년대까지 논산을 배경으로 하는 옛 사진을 공모
4 스마트폰 시대 현재와 미래 강연회	일시 : 4월 22일 14:00 인원 : 150여 명 장소 : 남부평생학습관 강당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청 현재와 미래를 조명,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대처하는 길잡이가 되는 강연회
5 어르신문화학교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내머릿속기억상자 이야기'	기간 : 4월~11월 인원 : 20여 명 장소 : 화지산신탐 문화공간, 자연체험미술학교 토감	어르신들이 토우 등 작품을 제작해 보는 과정에서 과거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표현하고 영상으로 담아 작품과 함께 전시회 개최
6 어르신문화학교 이수자강사파견 프로그램 '위풍당당어르신 한지공예가'	기간 : 5월~10월 인원 : 200여 명 장소 : 뽕밭요양원, 논산시보건소, 논산육군항공학교	어르신문화학교에서 한지공예를 이수한 어르신 공예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한지공예 강사로 활동
7 제5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및 제1회 애향사생대회	일시 : 5월 14일 14:00 인원 : 500여 명 장소 : 건양대학교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심사, 시상
8 전통 성년식	일시 : 5월 28일 13:00 인원 : 100여 명 장소 : 논산명재고택 대상 : 건양대학교 학생 30명	논산명재고택에서 건양대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식 재현

논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상월 방맹이 상여소리 재현	기간 : 5월~11월 인원 : 60여 명 장소 : 상월면사무소, 금강대 등	상월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맹이 상여 소리를 발굴하고 보존하였으며 상여소리 연습 과정을 거쳐 상월고구마 축제 시 재현
10 제21회 충남도지사 배민속대제전 참가	일시 : 5월 20일 10:00 인원 : 30여 명 장소 : 청양 백세공원	제21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널뛰기, 제기차기, 힘자랑 종목에 논산시 대표 선수를 선발 참가 종합 4위
11 제12회 논산시 어르신 장기대회	일시 : 6월 30일 9:00 인원 : 200여 명 장소 : 놀이세마을금고 4층	논산시 읍·면·동 어르신 선수 60여 명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시상
12 제6회 청소년문화제	기간 : 7월~8월 인원 : 1,500여 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외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6회 논산시 효글짓기 및 문화제 그림 공모전, 청소년들이 춤, 노래, 국악, 연주 부분을 경험하는 '내 마음의 푸른 꿈' 개최
13 제22회 논산시 서예취향대회	일시 : 9월 24일 10:00 인원 : 150여 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하여 서예 기량을 발휘하고 심사 시상 및 전시회
14 '독서의달행사' 독후감 공모전	기간 : 9월~10월 인원 : 100여 명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논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시상
15 에향충만! 오감 만족! 논산역사 문화교실	기간 : 9월~12월 인원 : 1,000여 명 장소 : 논산관내 유적지	시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1일차는 논산역사 특강, 다도, 생활예절교육, 국악공연을 실시하고 2일차는 논산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
16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일시 : 9월 28일 19:00 인원 : 200여 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음악가를 초청, 야외 무대에서 작은 음악회 개최

논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	일시 : 10월 8일 10:00 인원 : 500여명 장소 : 논산돈암서원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재현 및 장원급제자 유가행렬, 국악공연, 서당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부대행사 운영
18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일시 : 10월 31일 19:00 인원 : 200여명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논산시낭송인회 낭송과 대금, 현악3중주, 전통무용 등 협연
19 「황산벌 너른 선비 고을 이야기」 발간	기간 : 1월~12월 발행부수 : 1,000권	논산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발굴 조사 수집하여 발간 배포
20 「문학 속의 논산」 조사 수집	기간 : 1월~12월 인원 : 5명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속에 나타난 논산의 작품을 조사 수집
21 계간지 논산문화	• 봄 호 발행일 : 1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 여름호 발행일 : 7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 가을호 발행일 : 10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 겨울호 발행일 : 2012년 1월 1일 발행부수 : 1,500부	2003년 봄호부터 새롭게 창간된 논산문화는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권두시, 칼럼, 논단, 논산이야기, 동호회 탐방, 테마가 있는 박물관 여행, 선인들의 삶과 지혜 등 24개 코너로 연4회 계간지로 발간하여 각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 전국의 문화원, 문화원 회원 등에 배포
22 논산문예 제19집	발행일 : 10월 발행부수 : 500부	제26회 논산시 청소년 호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들을 엮어 발간 및 배포

논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3 논산시 주최 문화예술행사 주관(37개)	기간 : 1월~12월 인원 : 논산시민 대상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건양대, 논산공설운동장 등	영화 울지마 톤즈 상영, 딸기축제 야외공연, 돈암서원 야외공연, 연극 늑은자전거, 훈련소 이벤트공연, 연극 바쁘다바빠, 전통시장 야외공연 2회, 건양대학교와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뮤페라 바비비비의 사랑이야기, 탑정호 야외공연 2회, 눈이번쩍 귀가땀 뚝리는 클래식, 이탈리아와 오페라아리아의 나폴리콘서트, 조지윈스턴 솔로콘서트, 현악4중주 초청공연, 연극 달려라달달달, 금난새와유리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안치환 정호승 을노래하다, 점프, 연극호랑이야기, 무성영화이수일과 심순애, 추석명절귀성객맞이 야외공연, 상월고구마축제 축하공연, 연극늑은부부이야기, 동춘서커스,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연극 거북이야기, 시민과함께하는 드림콘서트, 연극 작은나무이야기, 연극 옥탑방고양이, 청소년문화공연2회, 난타, 강동석과 함께하는 실내악여행, 연극 골생원, 체코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 공연



1 금난새와유리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회
2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3 전통성년회
4 상월방맹이상여소리 재현

당진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지역역사 문화교육	기간 : 5월 26일~8월 11일 시수 : 12회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600명	한국의 역사와 지역의 역사에 대해 두명의 강사교육
2 남이흥 장군 문화제기념 학생백일장	일시 : 10월 22일 장소 : 충장사 경내 인원 : 1,000명	남이흥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국을 기리는 학생 백일장 개최(대상, 금상2, 은상2, 동상3, 장려상10명)
3 당진문화 35호 발간	일시 : 7월 30일 발행부수 : 1,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를 수록하여 발행
4 당진문화 36호 발간	일시 : 9월 30일 발행부수 : 1,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 당진시 출범을 알리는 내용 수록하여 발행
5 박물관 체험	일시 : 4월 6일 장소 : 청주시 인원 : 40명	충청도의 대표적인 박물관중 하나인 국립청주박물관과 고인쇄박물관을 체험하고 수암골 벽화마을 관람
6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4월 11일 장소 : 충북 보은군 인원 : 40명	삼년산성, 선병국 가옥, 속리산 법주사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7 세계인삼엑스포 참가	일시 : 9월 21일 장소 : 충남 금산군 인원 : 80명	금산에서 열린 세계인삼엑스포와 지역의 명소인 12폭포를 참관함
8 소외계층 문화탐방	일시 : 11월 1일 장소 : 전북 정읍시 인원 : 80명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동학농민운동기념관, 내장산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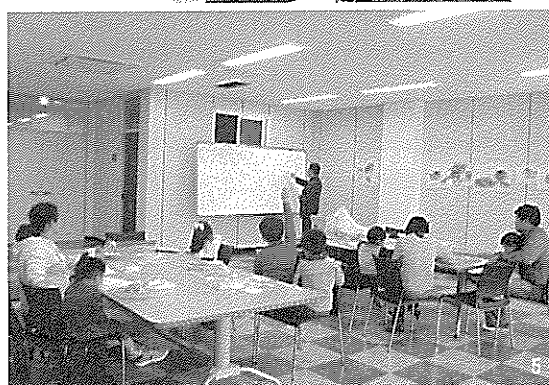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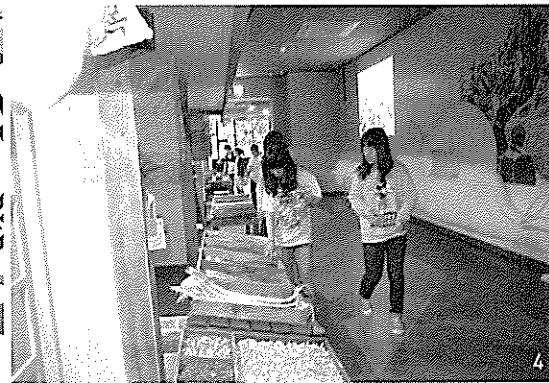
당진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미술관 탐방	일시 : 12월 6일 장소 : 서울, 과천시 인원 : 40명	문화학교 미술 수강생과 함께 현대미술관, 인사동 등을 체험
10 명사 시낭송의 밤	일시 : 12월 13일 장소 : 밤배 인원 : 100명	지역의 명사와 함께 애송시를 낭송하고 그들의 애송시를 수록하여 시집을 발간함
11 송년음악회	일시 : 12월 27일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150명	당진군의 마지막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당진시 승격을 기념하는 음악회 개최
12 한국미술인 명보	일시 : 12월 20일 발행부수 : 1,000부	삼국시대 이후 한국의 유명 미술인의 명단과 당진에서 현재 활동 중인 미술인의 작품 및 명단 수록 발행
13 청소년 역사교실	기간 : 5월 28일~12월 31일 시수 : 12회 인원 : 400명	지역의 문화유산인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 슬외성지, 신리성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남이홍장군유물전시관, 창의사 등 체험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바르게 알려 주는 교육
14 영화상영	시간 : 8월 5일~23일 시수 : 6회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600명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
15 찾아가는 문화나눔	기간 : 4월 30일~10월 30일 시수 : 10회 참여인원 : 1,000여명	지역의 복지시설을 찾아 국악, 무용 등 문화나눔 공연 시행
16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기간 : 9월 1일~12월 30일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500명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가요, 미술 등 문화예술 교육 실시

당진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문화학교운영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장소 : 당진문화원 인원 : 약 20,000명	노래교실, 생활영어, 일본어, 수채화, 유화, 문인화, 연필 인물화, 고전무용,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건강택견, 민요 장구, 민속놀이, 풍수지리, 명리학, 시낭송, 오카리나, 댄스스포츠, 한글교실
18 해외문화탐방	기간 : 3월 10일~14일 장소 : 중국 인원 : 회원 17명	중국의 고도인 낙양, 서안, 정주를 찾아 운대산·소림사·용문석굴·진시황릉탐방 등 탐방
19 대호지 4.4 독립운동 학생백일장	일시 : 4월 4일 장소 : 창의사 인원 : 500명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기념 학생백일장 공모 및 시상 (대상1, 금상2, 은상4, 동상6, 장려상 32명)
20 심훈 선생 자료집 발간	일시 : 9월 30일 발행부수 : 2,000부	심훈기념관의 건립 추진과정, 심훈 선생의 업적, 그와 관련된 유족들의 증언, 유족들이 평생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심훈기념관 내 전시될 유품들을 정리, 기록함과 동시에 이를 책으로 엮어 발간·보급
21 문화예술의 향연	일시 : 11월 3일~9일 장소 : 당진문화의전당 전시관 인원 : 500명	문화원 유화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touch by touch' 전 개최
22 어르신 문화봉사단	기간 : 4월 5일~12월 3일 시수 : 12회 참여인원 : 3,000여명	연합회 어르신문화봉사단 사업으로 '늘푸른약단' 이 지역의 복지시설, 노인대학 등을 찾아 문화나눔 공연
23 당진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일시 : 11월 12일~13일 장소 : 삼교호 인원 : 3,000명	농업인의 날을 기념한 당진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24 읍면 화합 한마음 축제	일시 : 11월 20일 장소 : 당진고 운동장 인원 : 1,000명	2012년 시승격과 함께 3개 동으로 분동되면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읍면 화합 한마당 축제'를 마련

당진문화원



1 해외문화탐방(웅문석굴에서)
2 문화탐방(금선)
3 학생백일장 시상

4 청소년 역사교실
5 다문화가족 그림일기
6 문화예술의 향연

대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석	일시 : 5월 20일 선수단 : 60명 장소 : 청양군 백제건강공원	도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고유의 전통 문화 유산 전승 보존을 위하여 제21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널뛰기, 합지랑, 제기차기 성적 : 종합 2위
2 문화가족 문화유적 답사	일시 : 5월 27일 인원 : 123명 장소 : 수원화성 대상 : 대천문화원 회원,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 코스 : 화성행궁 → 무예24기 공연관람 → 팔달문 → 경기도청 → 장안문 → 창룡문 → 연무대 → 용·건릉
3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양강좌	일시 : 7월~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및 문화유적 현장답사 참석 : 1,500명	시민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를 바로 알리고 애郷심을 고취 시키고자 강의 및 답사 강사 : 향토사학자 황의호, 황의천 선생 특별강사 : 최기영 대목장, 류호철 교수,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 답사지 : 경남 통영·거제(통영성, 칠천항), 충북 영동(심묘사지, 노근리), 경북궁
4 명사초청 강연회	일시 : 9월 2일 14: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인원 : 200명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신경림 시인 초청 강연회 개최 주제 : 「우리 시의 이해」
5 보령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일시 : 10월~12월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강의실 인원 : 500명	문학, 역사, 미술, 음악 등 교양 있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거둠
6 추석맞이 전통민속 체험	일시 : 9월 6일 14:00 장소 : 대천체육원 인원 : 60명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전통 민속 예절교육 및 체험행사 진행 차례상 진열 및 차례 법 교육 : 향교 유림 지도 체험행사 : 송편 빚기
7 문방사우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일시 : 10월 26일 13:00 장소 : 보령문화예술회관 인원 : 700명	문방사우(文房四友) 가운데 하나인 남포벼루의 원산지로서 보령지역은 그 정통성을 기반으로 베푸는 물론이며 한지, 붓, 묵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세대에 걸쳐 고루 향유할 수 있는 신개념 '서예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방사우에 관련된 박물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보령지역에 유치하고자 세미나 개최 식전행사 : 북청사자놀이 공연,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기조연설 :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정책세미나 : 권영민 서울대학교 교수, 황의호 대전 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김삼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종합토론

대천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8	주부문화탐방	일시 : 9월~12월 답사지 : 전국 문화유적지 인원 : 250명	주부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전국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 답사지 : 경남 창령 우포늪, 경남 합천 해인사, 충북 충주 탄금대,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보령관내 유적지
9	지역주민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일시 : 11월 21일 장소 : 보령·부여 일원 인원 : 45명 대상 : 효자도 주민	평소 문화소외계층 섬 주민에게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 답사지 : 성주사지, 무량사 등
10	청소년 충효 교실 운영	일시 : 8월 8일~8월 12일 인원 : 200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 및 예절의 참뜻을 이해시키고 효사 상을 높이기 위해 운영 강사 - 총 : 전 교육장 임남순 효 : 오천향교 유림 환경성 예 : 보령시 예절상담관 최관수 지 : 전 교육장 장광순
11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0월 22일 11:00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 묘역 참석 : 500명	백야 김좌진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제향 지냄 1부 : 제례의식 2부 : 추모행사
12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일시 : 11월 1일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참석 : 500명	고려 말 전라도 도만호 김성우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길이 추모하고 애국충성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추모제향을 지냄 1부 : 제례의식 2부 : 추모행사
13	제36회 청소년 미술·서예·백일장 공모전	일시 : 11월 7일~11월 25일 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 부문 : 미술, 서예, 백일장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래되어오는 미풍양속의 충효사상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과 미적체험을 진작시키며, 지역 미술·서예·백일장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지도교사상 시상)
14	제14회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일시 : 11월 15일~11월 17일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200명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과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예술인의 발굴 육성을 도모 출품 : 서예 19점, 한국화 12점, 서각 9점, 사진 8점
15	마을단위 전통민속행사	일시 : 음력 1월 15일 전후 장소 : 관내 마을 참석 : 300명	우리 고장의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행사(산신제, 다리제, 고목제 등)

대천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6	문화학교 운영 제4회 충남문화 예술제 참석	일시 : 10월 14일~10월 16일 장소 : 홍성군청 후원	충남문화예술인들이 지역간·장르간 다채로운 발표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토문화 전승과 예술창작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리는 충남문화예술제에 참석하여 부응
17	애향지 발간	발행 : 12월 12일 발행부수 : 1,200부	대천문화원이 한 해 동안 벌인 사업을 총정리하여 문화원 회원 및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여 애향정신을 고취
18	향토소식지 발간	발행 : 11월 30일	대천문화원에서 일어나는 행사 및 소식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꾸며 회원 및 시민에게 계절별로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 발행
19	문화학교 운영	과목 : 서예, 한국화, 서각, 일본어, 가야금, 민요, 한문 횟수 : 연중 주 1회 참여 : 2,000명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 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좌 운영
20	어르신문화학교	과목 : 은빛풍물예술단 운영 참여 : 40명	신명나는 풍물로 생활 속의 기쁨과 희망을 담아내며,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풍물을 통해서 굳은 몸과 정신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 마련
21	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	일시 : 5월 11일~5월 20일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역사문화발굴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문화발굴 활성화 해외 문화기반시설 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문국 문화기관 및 문화프로그램 교류 기회 확대

대천문화원



- 1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양강좌
- 2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양강좌
- 3 청소년 중·요·예교실 운영
- 4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 5 추석맞이 전통민속체험
- 6 추석맞이 전통민속체험

부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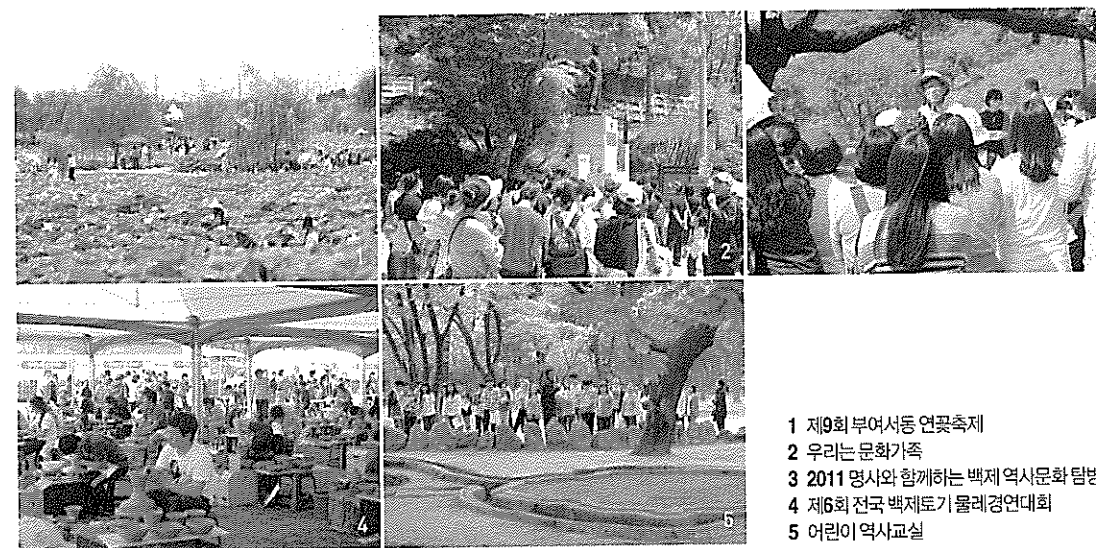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제6회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기간 : 10월 9일~10월 10일 장소 : 구드레광장 참여인원 : 80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4월 17일~11월 27일 장소 :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52명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 1회 사적 답사 및 문화 체험
3 제9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4월 19일 장소 : 구드레 조각공원 참여인원 : 416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백일장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 강좌	기간 : 1월 6일~1월 7일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40여 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문화현장탐방 교육	기간 : 3월 18일~12월 30일 장소 : 전국문화현장 참여인원 : 20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청남대, 베어트리파크, 해인사, 대장경박물관, 이응로기념관, 추사기념관 등 답사
6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기간 : 5월 14일~12월 30일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4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7 명사와 함께하는 부여 답사	기간 : 4월 30일~5월 28일 장소 : 군내 주요유적지 참여인원 : 210명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함께하는 관내 주요 문화유적 답사 및 강의 진행
8 우리땅 우리역사 바로알기	기간 : 12월 10일~12월 11일 장소 : 경남답사 참여인원 : 40명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군내 공직자를 위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여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향토민속발굴사업	기간 : 4월 1일~12월 30일 장소 : 부여문화원 발간부수 : 700권	부여 외산면 문신리 동화제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발굴 조사
10 제9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일시 : 7월 21일~7월 24일 장소 : 공남재(사적135호)일원 참여인원 : 10만여 명	서동 탄생설화가 있는 공남지에서 연꽃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 증진하는 관광문화축제 메인프로그램 3종, 공연프로그램 4종, 경연프로그램 3종, 상설프로그램 24종(전시,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함
11 제9회 홍산대첩문화제	기간 : 4월 11일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참여인원 : 1천여 명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 관련행사, 최영 장군 관련 행사, 전통문화행사, 보부상 관련행사 등
12 2011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9월 24일~11월 26일 장소 : 군내 주요유적지 참여인원 : 1,120명	우리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자 유홍준 교수, 박상진 교수, 도종환 시인, 김정산 작가 등 초청 답사 실시
13 출향인사 및 출향공무원 백제역사문화탐방	기간 : 1월 1일~12월 30일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참여인원 : 810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14 2011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기간 : 3월 7일~11월 27일 장소 : 부여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78회(2,320명)	매주 토요일·일요일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15 다문화가정 자녀를 둔 부모교육	기간 : 9월 15일~12월 18일 장소 : 부여문화원 교육일정 : 25회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을 문화교육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16 2011 시인 신동엽 추모문학제	기간 : 4월 10일~4월 16일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000명	2003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고 2005년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던 신동엽 시인의 41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정신과 삶을 추모하는 기념행사 문학의 밤, 문학기행, 추모제 등 다채롭게 운영함.

부여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백제역사아카데미	·기간 : 8월 17일~9월 28일 ·장소 : 부여군여성문화회관 ·참여인원 : 63명	2011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우선대상 선정에 따른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제고와 백제사 전문가의 특강을 통하여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유발
18 신년교례회	·기간 : 1월 3일 ·장소 : 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400여 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 등 발간
19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00여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1 제9회부여서동연꽃축제
2 우리는문화가족
3 2011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4 제6회 전국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5 어린이 역사교실

서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스산의 숨결 발간	일시 : 연중 발행부수 : 월 2,200부	문화원의 소식지로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 문화원 등에 배포
2 지역문화학교	일시 : 3월~11월 인원 : 1,000명 장소 : 서산문화원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평생교육을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
3 노인일자리 사업	일시 : 3월~11월 인원 : 40명 장소 : 관내학교, 마을회관, 문화유적지, 지역아동센터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어르신 강사 파견(교육형)
4 어르신 문화학교	일시 : 3월~12월 인원 : 30명 장소 : 서산문화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공연 및 봉사활동실시
5 문화유적 현장학습	일시 : 3월 23일, 3월 26일 장소 : 강화도 대상 : 문화원 회원 인원 : 80명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강화도 지역을 답사
6 제13회 청소년문학제	일시 : 4월 9일(문학제) 5월 25일(시상식) 대상 : 관내 초·중·고생 800여명 수상자 : 69명 장소 : 서산문화원 청아집 발간 : 100부	윤곤강 선생과 우보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을 개최함
7 선진문화탐방	일시 : 5월 11일~5월 20일	해외 선진문화시설 및 우수축제벤치마킹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원 운영
8 성년례	일시 : 5월 9일 대상 : 성년자 20명 장소 : 한서대학교 인곡관 대상 :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상고시대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첫 번째 예식인 관례, 계례를 현대에 맞게 시행함

서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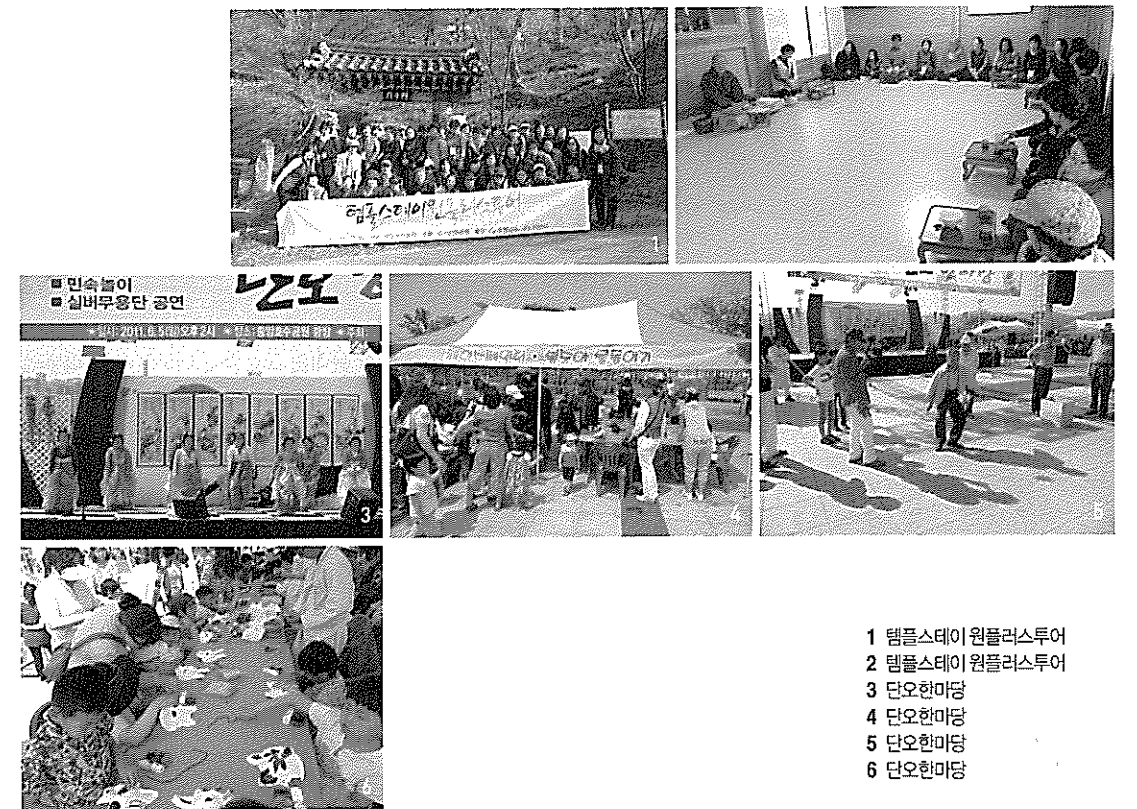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제21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5월 20일 대상 : 서산시민 장소 : 충남 청양군 백세공원 수상성적 : 종합 3위	전통민속행사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산시 대표로 출전
10 단오한마당	일시 : 6월 5일 인원 : 500명 장소 : 서산중앙호수공원	우리 고유의 4대 명절인 단오를 맞이하여 단오와 관련된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을 재현하여 잊혀져가는 우리고유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 및 발전
11 반차도 특별전시	일시 : 6월 25일 장소 : 서산향토사료관	영조 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반차도를 복제 전시하고 전통문화체험 실시
12 찾아가는 다도교실	일시 : 7월 18일~28일 횟수 : 10회 실시 대상 : 다문화 이주여성 및 초등학생 장소 : 동암초, 차동초, 해미초, 한서대학교 다문화센터	다도교육을 통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널리 알리고 이를 계승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또한 문화해택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과 소외지역 시민에게 인성교육 및 생화예절 교육을 실시함
13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프로그램	일시 : 7월~12월 인원 : 160명 장소 : 서산문화원	가사와 육아로 인한 유휴 여성의 증가와 재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 운영
14 템플스테이 원플러스 투어	일시 : 7월 23일~11월 18일 인원 : 650명 대상 : 템플스테이 이용객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서산투어를 통해 서산의 문화 홍보 및 템플스테이 활성화
15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일시 : 9월 1일~12월 4일(8회) 대상 : 타지역민 명사 : 서명숙, 옹혜원, 윤문식, 이순원, 한광일, 정호승, 문희순, 김수복, 박덕규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섭외하여 서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를 함께 답사하고 알아보면 명사의 명언을 청해 듣고 서산을 알리는 자리 마련
16 우수평생 학습프로그램	일시 : 9월~12월(4개월) 인원 : 60명 장소 : 서산문화원	장구, 난타, 모듬북 등 우리전통 국악강좌를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

서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제52회 한국민속 예술축제	일시 : 10월 8일 대상 : 서산시 장동, 덕지천동주민회 소 : 전남 여수시 학동 거북공원 전국 20개팀 경연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기 위해 1958 년도부터 개최하여 올해 52회를 맞게 되는 한국민속 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서산 덕지내 돌개미 두레놀이'라는 타이틀로 참가함
18 지역 여성문화 콘텐츠 발굴사업	일시 : 10월 10일 대상 : 서산시민 장소 : 단군전 프락 연출 : 임동창	조선시대 서산의 여류시인 오정취당을 기리는 음악회 개최
19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일시 : 11월~12월 인원 : 120명 장소 : 서산문화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좌 운영
20 문화가족 한마당	일시 : 11월 11일 장소 : 서산문화원 대상 :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인원 : 200명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21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일시 : 11월 30일 인원 : 150여 명 장소 :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회원 및 지역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발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의 학업 성취감을 높이고 실력 향상의 장을 마련
22 제19회 서산문화 대상 시상	시상 : 11월 30일 수상자 : 김상태(농악분야) 장소 : 서산문화원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 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23 제1회 청소년 문화상 시상	시상 : 11월 30일 수상자 : 초, 중, 고 각 1인 장소 : 서산문화원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상을 시상 함. 이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4 창리 영신제 조사 연구	연구자 : 이필영 부수 : 500부	서산시에 전해지는 민속문화 중 창리 영신제의 체계적인 자료 정리

서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25 직암문집 발간	부수 : 200부	조선후기 성균관 박사를 지낸 우리지역의 유학자인 직암 이철승의 유고집을 역주 발간하여 직암의 학문세계 재조명
26 윤곤강100주년 기념행사	일시 : 11월 26일 장소 : 서산문화원	윤곤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윤곤강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행사 개최
27 백제역사 아카데미	일시 : 11월 1일~12월 9일 (교육 12회, 답사 2회) 장소 : 서산문화원	백제역사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진을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 제공



1 템플스테이 원플러스투어
2 템플스테이 원플러스투어
3 단오한마당
4 단오한마당
5 단오한마당
6 단오한마당

서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문화교육프로그램	일시 : 1월~12월 장소 : 다목적실 참석인원 : 2,000여 명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킷트, 서예, 기타모임, 한시동아리, 시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2 문화유적답사 (상반기)	일시 : 5월 26일 장소 : 아산시 일대 참석인원 : 60여 명	서천문화원 회원들을 중심으로 아산시 외암마을과 온양 민속박물관, 현충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외적을 물리쳐 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참배 하며 일대기를 살펴보았음
3 제38회 청소년문예 백일장 및 제11회 신석초백일장	일시 : 7월 14일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 200여 명	신석초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38회 그리기, 붓글씨 및 제11회 신석초백일장을 연계하여 초등부, 중·고등 부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심사후 추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신석초상 신설)
4 문화유적답사 (하반기)	일시 : 10월 27일 장소 : 경주시 일대 참석인원 : 45명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경주 일대 유적지를 찾아 그지역의 역사와 옛 선인들의 생활상들을 돌아봄 으로 선인들의 지혜와 삶을 느낄수 있었음
5 학술지 발간	발행일 : 10월 31일 발행부수 : 300부	2010년도 "서천과 백제" 학술세미나의 결과물을 취합 하여 학술지 논문을 발간
6 윤여환 교수 초대전	일시 : 11월 21일~25일 장소 : 문예의 전당 참여인원 : 2,000여 명	서천군 출신 작가 윤여환 교수를 초대하여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작한 작품들 중 대표작들을 정리 하여 고향인 서천에서 '윤여환의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를 가짐
7 서천문화원 특성화 사업 "한산면지"	일시 : 9월~2012년 8월 용역 :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부수 : 1,000부	서천문화원 특성화사업으로 한산면지 편찬사업 용역을 공주교육대학교 최병택교수에게 주어 서천군 한산지역의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문화, 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통해 21세기 지역발전의 토대를 삼고자 함
8 제11회 기벌포 예술제	일시 : 12월 9일~17일 장소 : 서천문화원 참여인원 : 2,000여 명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상영 등을 선보이며 서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서천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학술연구사업 '진택집 번역 사업' 자료집	일시 : 1월~12월 장소 : 서천문화원 부수 : 20부	고유문화계발사업으로 우리지역 출신인 신광하의 문집인 '진택집'을 문부분과 시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사업을 계획하고 우선 문부분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자료집을 집대성하여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함
10 향토민속발굴사업 '판교면지'	기간 : 6월 20일~12월 20일 용역 : 유승광 발행일 : 12. 20 결과보고서 : 10부	서천군 '판교면지' 집필 용역을 서천 출신인 유승광 (박사)씨가 판교면의 역사, 문화 현황을 조사하여 집필 함으로 지역적 특성 홍보를 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 이고자 함
11 장항공공도서관 위탁사업	기간 : 연중 장소 : 장항공공도서관	장항공공도서관 위탁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이용, 열람,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 주민 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설치하여 활용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1 제38회 글짓기·붓글씨 및 제11회 신석초백일장
- 2 제38회 글짓기·붓글씨 및 제11회 신석초백일장
- 3 문화유적답사(경주)
- 4 문화유적답사

성환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노인교양 강좌	일자 : 3월 2일~5월 11일 장소 : 성환노인대학 참석인원 : 매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2 컴퓨터 교실 「1, 2, 3, 4, 5, 6, 7」 [문화학교프로그램]	일자 : 1차-3월 21일~4월 8일 2차-4월 25일~5월 17일 3차-5월 30일~6월 20일 4차-7월 4일~7월 22일 - 인터넷 5차-8월 16일~9월 5일 - 한글2007 6차-10월 4일~10월 24일 - 엑셀 7차-11월 7일~11월 25일 - 포토샵 (매주 월~금요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매 20명	
3 여성취미 교실 「1, 2」(꽃꽂이강습)	일자 : 1차-4월 19일~6월 7일 2차-10월 18일~11. 29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매 20명	생활꽃꽂이 지도
4 문화사랑방 (지역문화홍보관 운영)	일자 : 5월 9일 장소 : 성환역 방법 : 문화사랑방 운영	천안과 성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경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회화작품 [신성환장생도] 제작 설치
5 제21회 내고장문화유적 답사	일자 : 4월 14일/9월 27일 장소 : 백제문화권 일원 참석인원 : 매 4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郷심을 함양시킴
6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일자 : 연중 http://sunghwan.cult21.or.kr	홈페이지운영으로 지역 정보 및 문화활동 홍보
7 제3회 봉선홍경사 아파트구신 도량제	일자 : 11월 4일 장소 : 천안봉선홍경사 갈기비 앞 참석인원 : 300명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도량제를 재현하여 지역민들에게 역사관과 향토사 정체성을 확립시킴

성환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8 제28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일자 : 11월 5일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35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9 제21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일자 : 11월 5일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307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공모, 시상
10 제13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일자 : 11월 5일 장소 : 남서울대학교 참석인원 : 5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11 입상작품집 발간	발행 : 11월 25일 발행부수 : 500부 253작품(국판 칼라)	글짓기, 그림, 회화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12 제11회 향토작가 초대전	일자 : 11월 8일~12일 장소 : 성환역 구내 관람인원 : 10,0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 (20작품)
13 청소년음악회	일자 : 12월중 장소 : 관내 중·고교 참석인원 : 1,200명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 마련
14 청소년 문화강연회	일자 : 12월중 장소 : 관내 중·고교 참석인원 : 800명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의
15 천안의구비설화 (성가읍편) 발간	발행 : 12월중 발행부수 : 1,250부 (4×6배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중 전설, 설화의 조사, 보존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기여

성환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6 향토문화지(국역운초기원2) 발간	발행 : 12월중 발행부수 : 1,000부 (신국판)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조사, 정리하여 발간



1 여성취미교실
2 컴퓨터교실
3 제21회 애환의식고취그림그리기대회



4 제21회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5 노인교양강좌
6 제11회 향토작가초대전

연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대보름 맞이 윷놀이대회	일시 : 2월 19일 12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80명 대상 : 문화가족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윷놀이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연맥서화 전시회	일시 : 4월 14일 14시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연기군내 서예인	예향 연기의 맥을 잇는 순수서예인들이 뜻을 같이 하여 주옥같은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3 백제대제	일시 : 4월 15일 11시 장소 : 비암사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일반인	제례(역대왕 및 총령) 군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
4 독락문화제	일시 : 4월 22일 10시 장소 : 독락정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연기군민	고려 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킨 전서공 임난수 장군의 충정심을 기리기 위한 문화제
5 경로호친의 달 행사	일시 : 4월 27일 8시 장소 : 경남 창원 일원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어르신	개인택시조합과 결연하여 연기군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문화유적답사
6 성년의 날 행사	일시 : 5월 27일 8시 장소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예지관 참여인원 : 8명(300명) 대상 : 조치원여자고등학교 학생	전통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을 지역대학생들과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
7 효자효부 표창	일시 : 5월 25일 11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수상인원 : 7명 대상 : 연기군민	8개 읍·면 대상으로 읍면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아 효자·효부 및 효행학생을 선출하여 표창
8 어르신 동아리 발표회	일시 : 5월 25일 11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가팀 : 7팀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노인	연기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동아리별로 발표의 장 마련

연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문화유적답사 (전입 선생님)	일시 : 5월 19일 14시 장소 : 비암사, 베어트리파크 참여인원 : 30명 대상 : 연기군 선생님	연기군으로 전입한 선생님들과 함께 연기군내 문화 유적 답사
10 문화유적답사	일시 : 9월 23일 09시 30분 장소 : 대전뿌리공원, 금산엑스포 참여인원 : 30명 대상 : 문화가족	문화가족들과 함께 대전, 금산일원 문화유적답사
11 천안흥타령춤축제 (실버부)	일시 : 9월 30일 10시 장소 : 천안삼거리 주무대 대상 : 연기문화원 민들레클럽	연기문화원 민들레클럽 회원들이 실버부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
12 문화원의 날 행사	일시 : 10월 11일 9시 장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여인원 : 30명 대상 : 전국 문화원 회원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문화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가지고자 함
13 제11회 연기대첩제	일시 : 10월 16일 9시 장소 : 서면 연기대첩공원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연기군민	우리나라 7대첩 중 하나이며, 국난극복의 충신을 기리는 제례
14 2011년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 : 10월 16일 10시 장소 : 서면 연기대첩공원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 초·중·고 학생	연기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15 향토사 대중화 사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일시 : 10월 11일/19일 장소 : 대전, 연기군 횡수 : 3회 참여인원 : 21명	세종시가 주는 느낌을 원주민과 새로 첫마을에 들어오는 외지인에게 그동안 내용 및 성과를 아이들에게 연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16 제4회 동아리 발표회	일시 : 11월 25일 15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연기문화원 문화회원	연기문화원내 각 동아리별로 공연 발표 및 작품 전시회 개최

연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인간문화재 강정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연기제자 가야금 발표회	일시 : 11월 25일 17시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민	인간문화재 강정숙 선생님과 꿈나무들이 함께 하는 가야금 공연
18 출향, 재향 연기예술인의 만남	일시 : 11월 25일 18시 30분 장소 : 수정웨딩타운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출향 재향 문화예술인	연기군내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기의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코자 함
19 연기소리봉사단 발표회(뽕파전)	일시 : 11월 29일 15시 장소 : 전동면 방주의 집 참여인원 : 150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소리봉사단이 일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의 장
20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	기간 : 3월~12월 장소 : 연기군내 초·중·고 학교 참여인원 : 80명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학생	연기군내 초·중·고 학교를 찾아가는 가야금 교육
21 찾아가는 우리소리 공연	기간 : 6월~9월 장소 : 연기군내 참여인원 : 12명 횡수 : 5회 대상 : 연기군민	각종 시설 및 소외된 지역을 찾아 우리소리 공연
22 전통놀이 교육	기간 : 6월~12월 장소 : 연기관내 참석 : 80명 대상 : 연기군민	우리 옛날 양반놀이 전문강사 보급 교육 및 실습
23 노인운동지도사 자격증반/운동반 교육	기간 : 6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무용교실 참석 : 60명 대상 : 연기군민	흥겨운 음악에 맞춰하는 노인운동과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통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운동반 운영
24 제3기 내고장 강산 역사 이야기	기간 : 7월~8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80명 대상 : 연기군 초·중·고 학생	연기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기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

연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25 제4기 연기문화해설사	일시 : 7월~10월 장소 : 연기문화원, 충남도내 참석 : 30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군내 문화유적 및 역사 교육
26 5일장의 흥을 찾아서	기간 : 7월~10월 장소 : 연기군 조치원 재래시장 횟수 : 55회 대상 : 연기군민	조치원 재래시장에서 총55회 거리공연을 개최하여 재래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
27 세종시민대학	기간 : 7월~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횟수 : 20회 대상 : 연기군민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연기군민들에게 정보지식 습득과 교양지식 제공
28 연기군의 뿌리를 찾아서	기간 : 7월~12월 장소 :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 참여인원 : 5명 발간부수 : 500부	세종시로 잊혀진 금남면, 남면, 동면에 집성촌을 이루 고 살고 있는 성씨를 조사하여 책으로 편찬
29 향토민속발굴사업 (관아 조사)	기간 : 7월~12월 장소 : 연기군내 참여인원 : 5명	연기군에는 연기현의 연기 관아, 전의현의 전의 관아가 일제침략으로 관아에서 초등학교로 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사 정리
30 마을의 동제문화를 조사하여 영상물로 만들어 보자	기간 : 7월~12월 장소 : 연기군내 횟수 : 4회 참여인원 : 50명	연기군은 행정복합도시로 인하여 현재에는 10여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제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영상물로 기록해 후세들에게 보급
31 연기소식지 발간	기간 : 8월, 12월 참여횟수 : 2회 발간부수 : 2,500부	연기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문화원을 홍보함
32 판소리 및 가야금 교실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석 : 30명 대상 : 연기군민	서양음악에 젖어 있는 세대들에게 우리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 및 우리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연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33 풍물교육 및 연습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풍물교실 참여인원 : 50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일반인	매주 월~금요일까지 웃다리 풍물놀이 및 난타 교육
3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군민회관 풍물교실 참여인원 : 30명 강좌수 : 2과목 참석 : 30명	매주 화요일 경기민요 매주 목요일 남도민요 노래가락 및 판소리 교육
35 향토사 연구활동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향토사료실 참여인원 : 30명 대상 : 연기향토사 연구위원	향토사료조사 연구활동 및 내교장 향토문화교육
36 주부교양강좌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80명 강좌수 : 1과목 대상 : 일반인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 (다도, 주부교양특강)
37 독서실 운영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향토사료실 대상 : 연기군민	각종 교서적 및 일간지, 주간지를 구입하여 연기군민이 문화원을 방문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운영
38 문화학교 운영	기간 :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내 참여인원 : 300명 강좌수 : 11과목 대상 : 문화가족	다양한 문화 강좌를 교육함 영어, 일어, 중국어, 서예, 민화, 사군자, 청소년 판소리, 요가, 스포츠 댄스, 통기타, 청소년 요리

연기문화원



- 1 청소년 사생대회
- 2 제4회 동아리발표회(기타교실)
- 3 성년의 날 행사
- 4 노인운동지도사 자격증 수업
- 5 강정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요발표회

예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예당호 해맞이 일시 : 매년 1월 1일(7개월) 인원 : 1,500명 장소 : 예산군 예당호 조각공원	매년 1월 1일 전국 최대규모의 저수지인 예당호를 배경으로 첫해돋이를 보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행사
2	신년교례회 일시 : 1월 4일 대상 : 300명 장소 : 한일 플라자 대상 : 출향인사 및 관내 기관 단체장	예산군 기관단체장 및 출향인사들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
3	지역문화학교 운영 일시 : 3월~11월 대상 : 500명 장소 : 예산문화원 대상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	라틴댄스, 풍수지리, 서예교실, 한국화, 문인화, 독서지도사, 어린이발레, 요가교실, 한학강좌 등 16개 문화강좌 운영
4	문화단체 지원 일시 : 3월~11월 대상 : 100명	예담사진전, 여섯줄안에서 행복나눔콘서트, 토요일 행복프린지 콘서트, 사조경창대회 등 지원
5	마을 동제 지원사업 일시 : 1월~11월 대상 : 예산군 관내 6개마을	예산군 소재 예산읍 공원산 산신제, 덕방산 산신제, 대흥면 갈산리 장승제, 교촌리 행당제, 신암면 조곡리 산신제, 고덕면 호음리 산신제 민속지 보존 지원
6	내포 문화강좌 일시 : 6월~10월 대상 : 예산군민 장소 : 예산문화원	예산지역군민을 대상으로 내포지역 역사문화강좌 및 답사
7	독서 감상문 대회 일시 : 9월 대상 : 예산군 관내 초등학교	우리지역 역사인물 바로알기 사업 일환으로 예산지역 독립운동가인 '일연신현상선생 전기' 독후 감상문 대회 진행
8	제20회 임존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 일시 : 10월 7일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항거지인 사적 90호 예산군 대흥임존성에서 백제 부흥군 위령제 거행

예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문화유적 문화답사	일시 : 연중 5회 대상 : 문화회원 및 예산군민 회당 90명	년 5회에 걸친 문화답사 진행
10 청소년 문화답사	일시 : 8월 17일 대상 : 예산군 관내 청소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및 한여름밤의 꿈 뮤지컬 공연 관람
11 문화학교 전시 발표회	일시 : 12월 9일~13일 대상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 500명	일년 동안의 문화학교 활동을 총결산하는 발표회 및 종강 수료식 진행
12 예산문화 44호 발간	일시 : 12월	일년동안 예산지역과 문화원을 통한 문화활동 소식과 활동상황을 정리하고 책에 게재하는 종합 문화지 발간
13 충남 관현악단 초청공연	일시 : 11월 4일 대상 : 예산군민 500명	충남교향악단 초청 "가을의 선율" 연주회 개최
14 제22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일시 : 10월 8일~9일 대상 : 전국 서예인 2,000명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비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예산군 추사고택일원에서 회화대회 개최
15 제13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청소년 회화대회	일시 : 10월 8일 대상 : 전국 학생 500명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비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예산군 추사고택일원에서 회화대회 개최
16 추사 김정희 선생 서세 155주기 추모제례	일시 : 10월 9일 대상 : 일반인 1,000여 명	추사 김정희 선생 서세 155주기 공식 추모제례 봉행

예산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예산의 지명으로 엮은 시집	일시 : 1월~12월	예산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및 지명으로 엮어진 시집 간행
18 역사 서사시집 대흥임존성 출간	일시 : 1월~12월	백제부흥운동의 최후이자 마지막 항거지인 대흥임존성 백제 부흥군을 기리는 역사 서사시집 간행
19 추사회화대회 초대작가 전시전 개최	일시 : 10월 8일~9일 대상 : 추사회화대회 배출 초대작가 300여 명	추사 회화대회에서 배출한 전국의 초대작가 전시전 개최
20 추사와 나무의 만남전	일시 : 10월 8일~13일 대상 : 예산군 서각회	소목장 해초 박학규 선생과 서각회 회원들의 추사체 서각작품 전시전 개최
21 제22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수상작 전시회	일시 : 12월 17일~30일 대상 : 추사회화대회 수상자 200여 명	제22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

예산문화원



1 독후감상문대회
2 문화행사
3 문화행사
4 문화학교 중강발표회
5 백제부흥군 위령제
6 청소년 문화행사

온양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1월 3일 인원 : 200명 장소 : 온양 그랜드호텔 대상 : 관내 기관장 및 대표 새해를 맞아 건강을 기원하고 업무협조 체제 구축 신년교례회 수첩배포
2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일시 : 8월 8일 인원 : 80명 장소 : 온양문화원 대상 : 관내 청소년(중학생) 짚풀공예, 예절교육, 염색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 그램으로 방학중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
3	고향의날 행사	일시 : 9월 9일 인원 : 150명 장소 : 온양 그랜드호텔 대상 : 출향인 및 관내 인사 많은 출향인과 지역인사들이 모여 추석을 맞이해 고향에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고 우리지역의 불우한 이웃에게 쌀을 전달함
4	제12회 아산청백리상 및 제13회 어린이행사성상	일시 : 10월 11일 인원 : 100명 장소 :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 터 대상 : 수상자 및 아산시민 고불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아산청백리상 (3개 부문) 및 어린이 맹사성상(5개부문)을 선발하여 시상함
5	제5회 맹정승 폴든벨을 올려라	일시 : 10월 14일 인원 : 80명 장소 : 송남중학교 대상 : 송남중학교 학생 지역 학생들의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맹사성 관련문제와 아산관련 역사문제 풀이를 실시하여 지역문화 바로알기에 기여함
6	문화탐방	일시 : 매월 1회 인원 : 연인원 480명 장소 : 국내 문화유적지 대상 : 아산시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의식 고취에 기여
7	아산타이딩 발간	일시 : 연 2회 발행부수 : 회당 600부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발간하여 문화가족, 시민, 전국 문화원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하여 지역의 소식을 알리고 문화원 행사참여 홍보에 기여함
8	환경체험 프로그램	일시 : 6월~12월 인원 : 연인원 100명 장소 : 문화원 및 관내 숲 대상 : 관내 청소년 짚풀과 재활용 목재를 활용하여 새집을 만들어 직접 달아주는 체험을 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연보호 정신을 고취시킴

온양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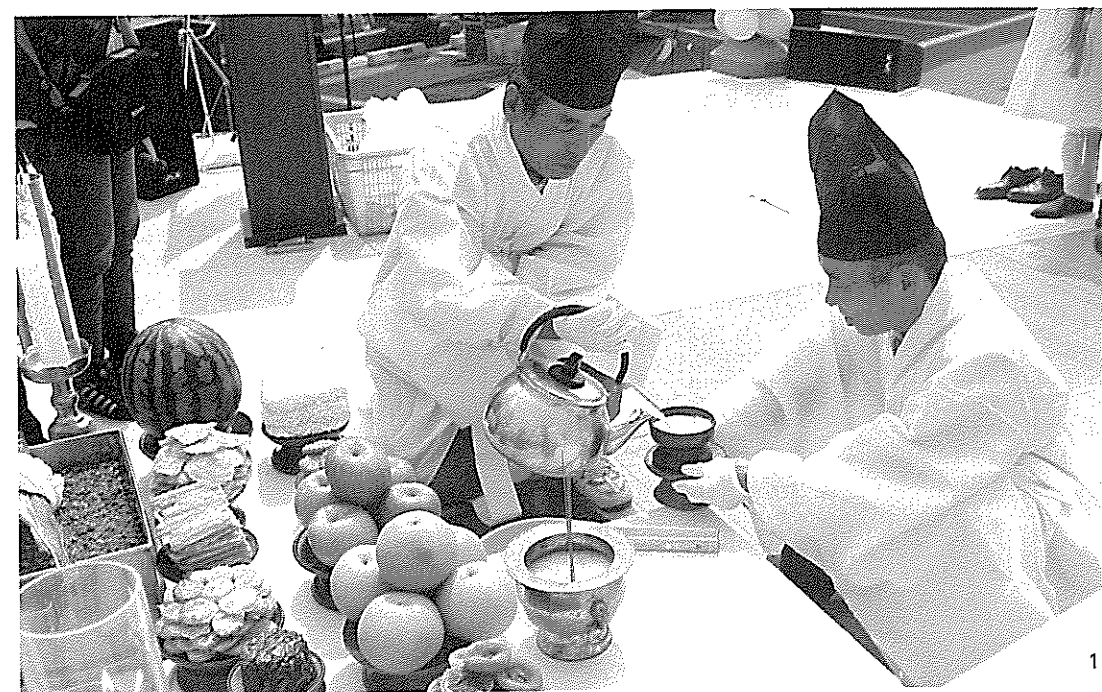


1 신년교례회
2 고향의 날
3 골든벨
4 청백리상 시상
5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6 환경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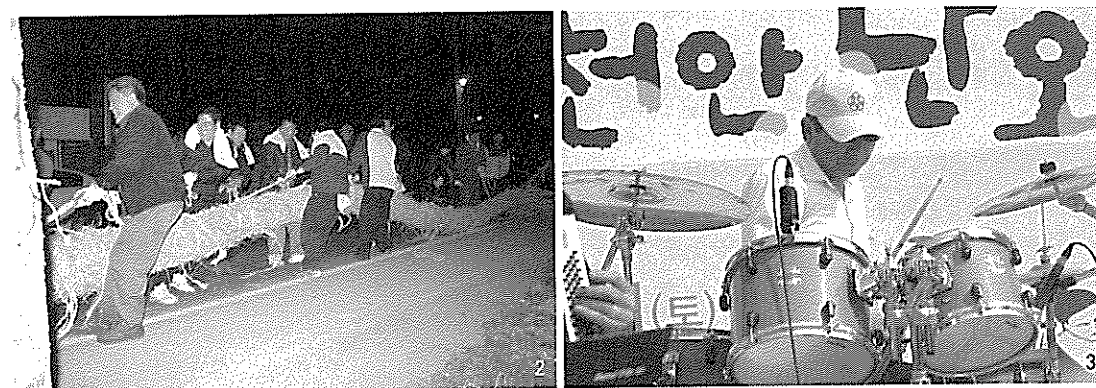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 광덕 구정마을 줄다리기	일시 : 2월 18일 장소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구정마을 인원 : 약 1,500명 대상 : 지역주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줄을 만들어 당기고, 장승제를 지내 전통문화행사를 보존하고 계승함.
2 제27회 단오축제	일시 : 6월 11일 장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공영주차장, 문화원 광장 인원 : 약 2,800명 대상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단오절을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함
3 향토민속발굴 보존사업	일시 : 3월~8월 결과물 : 이동녕 선생 만화책 인쇄 : 600권	지역 고유문화를 조사하여 보존하고, 만화책으로 발간 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4 한국어 소그룹운영	일시 : 1월~11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18명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교육기관과 다소 소외된 외국인 이민자를 위하여 운영됨
5 유관순추모제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작품 전시회	일시 : 9월 28일 장소 : 유관순 열사 기념관광장 인원 : 65작품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천안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전 실시. 추모제 기념 전시회 개최
6 사군자 교실	일시 : 8월~11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15명	먹을 통해 사군자를 그려 마음수양을 위한 문화교실
7 풍수지리 교실	일시 : 3월~11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15명	전통문화 풍수지리에 대하여 연구, 간담활동을 함
8 꽃꽂이 교실	일시 : 3월~11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15명	취미,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작품전 사회 활동을 함

천안시동남구문화원



1



2

3

1 단오제
2 광덕 구정마을 줄다리기
3 단오제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생활영어	일시 : 8월~11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10명	쉬운 생활영어로 중·장년층이 거부감 없는 교육으로 개인의 자긍심을 높임
10 풍선아트	일시 : 3월~6월 장소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인원 : 8명	이주민을 위한 문화교실로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함
11 청소년 유적답사	일시 : 10월 27일 장소 : 공주, 부여 인원 : 45명	우리문화를 바르게 알고 다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12 문화바우처	일시 : 3월~11월 장소 : 전시, 공연장 인원 : 56명	문화가족을 위해 공연티켓을 보조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
13 사이버문화원	일시 : 6월 장소 : 단오축제현장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 축제현장을 촬영하여 온라인상으로 문화원을 홍보함
14 미술전시회	일시 : 9월 장소 : 문화원홍보관 인원 : 100명	지역 향토작가 미술전시회를 개최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문화학교	기간 : 1월 3일~1월 28일 장소 : 청양문화원 수료인원 : 78명 동계청소년문화학교 - 음악난타 교실 - 미술 교실 - 폼아트 교실 - 종합공예 교실 - 댄스스포츠 교실 - 종이접기 교실(계6강좌) -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중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기간 : 7월 25일~8월 19일 장소 : 청양문화원 수료인원 : 97명 하계청소년문화학교 - 음악난타 교실 - 미술 교실 - 폼아트 교실 - 종합공예 교실 - 종이접기 교실 - 재즈댄스 교실(계6강좌) - 영화상영(무료)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 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2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일시 : 4월 23일 10:30~17:00 장소 :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참석인원 : 25,000여 명 본행사 - 개막식 - 칠갑산장승대제 - 장승명문식 - 장승깎기 시연 - 마을장승제 시연 - 가족장승깎기 부대행사 - 학생그리기대회 - 가족허수아비창작 공모전 - 나만의 우표 만들기 - 소원성취기원문 달기 - 소지올리기 - 윤금선무용단 초청 공연 - '유정' 서예퍼포먼스 - 청양문화원 국악팀 공연 - 동춘서커스공연 - 가수 '김국환' 공연 - 국악신동 '박성열' 공연 - 미술공연, 동물공연 - 페이스페인팅 - 가훈씨주기, 사진전시회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 문화 보존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 문화 축제로 육성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3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일시 : 4월 8일 참여인원 : 39명 순례장소 강릉시 문화유적지 - 오죽헌, 경포대 외	유적지 순례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제2차 일시 : 10월 28일 참여인원 : 38명 순례장소 김해시 문화유적지 - 수로왕릉, 노무현 생가(봉화마을)	
4 지역사회 교육	응모기간 : 9월 19일~10월 21일 충의선열추모 한글작품 공모전 - 특선(초등1, 중등1, 고등1) - 가작(초등1, 중등1) - 입선(초등2, 중등2, 고등2) - 장려(초등2, 중등2)	
5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1차 : 10월 6일(36명) 청남초등학교 2차 : 10월 7일(40명) 장평초등학교 3차 : 10월 17일(140명) 정산중학교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 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순례장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간월도 간월암, 해미읍성, 김좌진장군 생가, 한용운 선생 사당
6 문화가족 씨름운영	기간 : 4월~9월 장소 : 문화원 3층	한국무용강좌(청양무용회) - 제15회 칠갑문화제 공연
	일시 : 12월 17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한사랑 음악회(음악씨름 한사랑)
	일시 : 10월 31일(10명)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청양향토사연구회) - 예산 : 추사고택 - 홍성 : 만해 한용운 선사 고택 및 기념관
	일시 : 8월 19일 장소 : 부여군충나라 백제역사재현단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문화학교 수료생)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6	문화가족 씨름운영	일시 : 12월중 장소 : 관내 유적지 청양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청양문화유적지킴이)
		기간 : 6월~7월 장소 : 감리교회 색소폰 교실(청양군 색소폰모교지)
		기간 : 10월 19일~10월 21일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9회 청양서우회전(청양군 서우회)
		기간 : 11월 11일~11월 13일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17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청양칠갑사진회)
		일시 : 7월 26일 조상 현장 답사(정산 풍수지리학회 청양학회) -경기도 포천시 이항복의 묘 외
		일시 : 11월 25일 장소 : 문화원 3층 제9회 청양군 바둑대회(청양군 바둑협회)
		기간 : 연중 장소 : 문화원 2층 국악교실(가야금, 장구, 민요) -제1회 청양군 밤·참죽제 공연
		기간 : 7월~9월 장소 : 문화원 2층 풍물교실(청무풍물패)
		기간 : 9월 30~10월 6일 장소 : 문화원전시실 청양미술협회 정기전(청양군 미술협회)
		기간 : 6월~10월 장소 : 정산면사무소 정산 풍물교실(정산 풍물동아리)
		기간 : 6월~10월 장소 : 정산면사무소 정산 서예교실(정산 서예동아리)
		기간 : 6월~8월 장소 : 유정서예 청림서학회 서예교실
		기간 : 10월~12월 장소 : 두레풍물 풍물교실(비봉동아리 가람풍물단)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7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승	일시 : 11월 30일 장소 : 문화체육센터 참여인원 : 300여 명 전통민속놀이 읍·면대항 경기 -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우리고유의 전통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읍·면민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최
8	애향운동	일시 : 12월 6일 장소 : 문화원 2층 및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70명 내고장 문화알리기 - 상호교례 - 문화유적지 탐방(정혜사) 출향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회원 송년의 밤
9	송년음악회 및 문화가족 씨름공연	일시 : 12월 20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송년음악회 문화가족 씨름공연 - 국악교실 - 청무풍물패 - 청양무용회 - 청양군색소폰모교지
10	발간사업	발행부수 : 1,000부 발행일 : 12월 향토민속발굴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칠갑문화 21호
11	문화코너 운영	기간 : 년중 자료열람실(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 교육에 기여
12	향토사료관 운영	기간 : 년중 향토사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활 방식 등을 알수 있는 계기마련
13	사이버문화원 운영	일시 : 년중 홈페이지 주소 : cheongyang.cult21.or.kr 문화소식·청양의 역사소개 축제/행사·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

청양문화원



- 1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2 제9회 청양서우회원전
- 3 문화가족 씨름운영
- 4 민속놀이음·면대항경기
- 5 제9회 청양군 바둑대회



태안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당제전승·보전	일시 : 2월 27일(음 1.14) 장소 : 고남면 누동리, 근흥면 신진도리, 남면 당암리, 원청리, 신장리(산신제), 소원면 파도리, 가의도 대상 : 각 마을주민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 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시연	일시 : 3월 5일(음 2. 1) 장소 : 이원면 관리 1구 벚가릿대놀이 전수화관 대상 : 기관장 및 마을주민 참여인원 100여 명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 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 날인 음력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누인다.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친다
3 가족문화체험	일시 : 3월 26일 장소 : 북촌한옥마을 대상 : 가족단위 참여인원 : 40명	가족과 자연,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통해 소중한 가족의 추억 거리를 제공함
4 사이버문화원 운영	일시 : 연중실시 장소 : 태안문화원 홈페이지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5 초·중 미술 실기대회	일시 : 6월 18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솔밭 대상 :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참여인원 : 370명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 등 사생대회를 실시함
6 소성의 향기 17집 발간	일시 : 원고모집 9. 30 마감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인원 : 10여 명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 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 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7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	일시 : 9월 21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상 : 태안 예술인 참여인원 : 300여 명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 지역문화예술 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 등
8 움직이는 문화공연	일시 : 11월 22일 장소 : 아이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창기초등학교 대상 : 태안군내 소외계층 인원 : 200여 명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 문화공연을 실시함

태안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지역문화 교류사업	일시: 9월 28일 장소: 대관령양떼목장, 대관령 등대, 주문진 수산시장 등 대상: 문화가족, 문화원 임원 등 인원: 40명	강원지역 문화탐방 기회를 갖고 문화원간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함
10 태안 섬 기행	일시: 6월 11일 장소: 격렬비열도 등 대상: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80명	태안의 유람선을 이용해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격렬비열도 등의 자연자원에 대한 탐방의 기회 제공
11 태안의 풍경 사진자료 디지털화 사업	일시: 3월~6월중 실시	지역에서 수집된 슬라이드 필름 1,300여장을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화 작업
12 태안의 민속문화 영상채록	일시: 2011년 1월~12월 장소: 태안군 일원(고남두동리 당제, 남면 당암리 당제, 원정리 용왕제, 신장리 산신제, 파도리 당제, 중앙대제, 신진도리당제, 가의도리 당제, 벗가릿대놀이, 조개부르기제 등)	2개년 계획으로 태안의 당제, 마을제, 민속제 등의 영상채록 및 인터뷰, 문헌자료 정리 등
13 제20회 소성백일장	일시: 9월~11월 장소: 문화원 공모로 실시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참여인원: 350 여명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지역문화와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4 태안군어린이동요 대회	일시: 6월 18일 장소: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상: 태안군 초등학교 재학생 인원: (예선) 65팀 150명 (본선) 16개팀 47명	태안군내 어린이들의 건전한 동요문화 정착과 본 대회를 통해 연중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태안군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한 후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함
15 문화학교	일시: 4월~10월 장소: 태안문화원 대상: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강좌수: 6개 수강인원: 200여 명	서각, 유화, P.O.P, 사진교실, 천연핸드메이드 비누 & 화장품, 리본&펠트&돌페인팅
16 태안군지 발간	일시: 1월~12월 참여인원: 50명	태안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총망라한 총 6권 13편으로 제작되어 향후 태안군의 종합역사문화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태안군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계승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태안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5월 20일 장소: 청양 백세건강공원 대상: 태안군민 참여인원: 50명	충남도내 16개 시·군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6개 종목의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 참여해 경합을 벌임
18 도서관 및 향토자료관 운영	일시: 1월~12월 장소: 문화원 도서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도서 분류 및 정리를 통해 일반 도서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국의 향토문화관련서적과 문화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함
19 제10회 태안문화제	일시: 6월 18일 장소: 태안문화예술회관 일대 대상: 태안군민 인원: 3,000 여명	태안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왕성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목적으로 함
20 백화산성 발굴조사	일시: 6월~8월 장소: 태안읍 백화산성	백화산성에 대한 유물 수습을 통해서 정확한 축조연대를 파악하고 문지 및 성벽의 축성 구조와 건물지의 잔존여부를 조사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1 태안읍 명품명소 만들기	일시: 2010년 11월~2011년 10월 장소: 태안읍 일원	태안읍 도심 상권의 쇠퇴를 극복하고 태안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소재발굴을 통해 역사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거리 조성과 도심자원 개발방안 연구
22 지방문화원장 역사 문화탐방	일시: 5월10일~5월 20일 장소: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 코 등	지방문화원장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
23 제4회 태안역사 문화학술평의회	일시: 11월 11일 장소: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대상: 향토사가, 문화가족 지역주민 등 인원: 200명	매년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토론회자들이 함께 태안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
24 가족나들이 바우처	일시: 5월~10월 장소: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변산리조트 아쿠아월드, 내소사, 전주동물원 등 대상: 태안지역주민등록 거주자 인원: 500명	가족과 자연,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문화체험을 통해서 소중한 가족의 추억거리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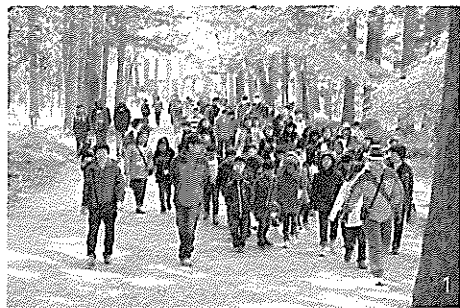
태안문화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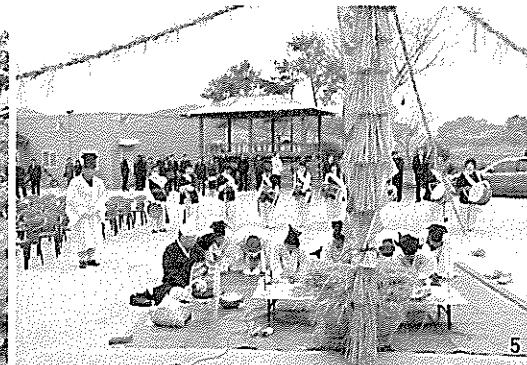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일시 : 4월~5월
장소 : 서·태안 인근 숲, 바다
참여인원 : 20명
대상 : 미취학 아동, 학부모

부모와 미취학 아동이 함께 주말을 이용해 생태프로그램에 참가해 유대감을 갖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도모함



1 가족나들이바우처
2 태안군 어린이동요대회
3 섬기행
4 백화산성 시굴조사
5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홍성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화요 상설공연 '풍경소리 행복한 가요'	일시 : 1.4(화), 1.11(화), 1.18(화), 1.25(화), 2.1(화), 2.8(화), 2.15(화), 2.22(화), 3.8(화), 3.15(화), 3.29(화), 4.5(화), 4.12(화), 4.26(화), 5.3(화)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1,000여 명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풍경소리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실시. 사물놀이, 민요, 전통무용, 7080 가요, 통기타, 발리댄스 등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공연 제공
2 홍성문화원의 찾아가는 영화관	일시 : 1.31(월), 3.28(월), 4.25(월), 5.30(월), 6.27(월), 7.25(월), 10.31(월), 11.28(월), 12.26(월) 14시 장소 : 장수원 대상 : 시설 어르신 참석인원 : 매회 50여 명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외시설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상영
3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일자 : 3. 1(화)~10. 31(월) 8개월간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옛 홍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발전상, 건조물, 골목 등 홍성과 관련된 모든 개인 소장사진 공모 실시
4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화요 상설공연 '직장인밴드 정기공연'	일시 : 3.22(화), 4.19(화), 5.17(화), 6.21(화)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 명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직장인밴드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실시. 푸르미, 오서산밴드, 달구지밴드, 온새미로밴드 등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공연 제공
5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민속공예 교실'	일자 : 3. 25(금)~8. 16(화) 20회 장소 : 장수원, 유일원(리온의 집) 대상 : 시설 어르신 참석인원 : 40명	짚풀공예와 박과 명아주를 재배 수확하여 만든 박공예 그리고 어르신 손글씨 등을 활용한 민속공예품 및 소품을 만들어 전시 및 판매. 잊혀져가는 농촌지역의 민속공예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대와 생활의 활력소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6 2011 어르신 문화 나눔봉사단 '홍성 문화나눔봉사단 - 풍경소리'	일자 : 4. 1(금)~9. 5(월) 10회 장소 : 장수원, 구항면 미온마을, 한마을예식장, 구항면 구항면꽃축제장, 유일원(리온의 집), 남산공원 단오절한마당축제장, 서부면 속동마을, 광천제일고등학교, 구항면 내현마을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 관람객 봉사단원 : 20명 참석인원 : 1,500여 명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보육원, 산간벽지, 교도소 등 소외시설 및 관내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국악, 민요, 가요 등 문화나눔공연 및 영화상영을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봉사의 의미,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 마련
7 우리문화 알아보기 '하동문화탐방'	일시 : 4. 8(금) 8시 장소 : 경남 하동 최참판댁, 화개장터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 참석인원 : 40여 명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가족들과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8 문화학교 발표회 & 문화예술공연팀 창단공연	일시 : 4.12(화)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200여 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한글서예, 도예, 서양화, 포크아트) 및 시연(노래부르기, 색소폰연주, 다도)과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풍경소리, 직장인밴드 창단공연 실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자리 제공

홍성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9 제4회 야생화 전시회	일자 : 4.12(화)~4.14(목)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 명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보면서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 마련. 새로운 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는 자리 제공
10 2011 향토사 대중화사업 '전운상 장군과 해골선 이야기'	일자 : 4. 30(토)~10. 15(토) 25회 장소 : 홍성문화원 3층 강의실 대상 : 관내 중학생 참석인원 : 20명	홍성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성의 인물인 전운상 장군의 해골선을 스토리텔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골선의 모형 제작과 클레이애니메이션을 제작. 향토문화자원으로 발굴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고취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11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전통성년식)	일자 : 5.16(월) 11시 장소 : 해전대학 야외무대 대상 : 해전대학 학생 참석인원 : 300여 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12 제21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일자 : 5.20(금) 10시 장소 : 청양군 백세건강공원 대상 : 홍성군민 주최 : 충도일보 주관 : 홍성문화원 참석인원 : 50여 명	민속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등 다양한 민속경기와 풍물단 공연, 노래자랑, 투호놀이 등 충남도민의 민속축제 한마당에 참가
13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의 '2011 농어촌문화 예술 기반조성사업' '단오절맞이 앓은곳 한마당'	일자 : 6.3(금) 10시 장소 : 남산공원(구, 푸른섬터)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300여 명	단오날을 맞아 충청도 앓은곳과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 전통문화의 의식고취와 애향심 고취. 범 군민적 일체감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함
14 제6회 여름전통문화학교	일자 : 7. 25(월)~7. 29(금)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생 참석인원 : 50여 명	우리고장 문화알기, 야생화교실,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짚풀공예교실, 박공예교실, 영화감상,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15 2011 문예진흥기금 '여름농촌민속공예 학교'	일자 : 7. 27(수)~7. 29(금)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생 참석인원 : 45명	농촌향기가 가득한 짚풀과 조롱박을 이용한 민속공예품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야생화를 가꾸고 관찰하는 자연체험학습으로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16 우리문화 알아보기 '부여공주문화탐방'	일자 : 7. 29(금) 9시 장소 :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공주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대상 : 홍성관내 초등학생 참석인원 : 40여명	벽지 초등학교 중심으로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홍성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17 제6회 한여름 밤의 영화제	일자 : 8. 16(화)~8. 18(목) 20시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50여 명	무더운 여름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영화 무료상영으로 더위해소 및 여가문화 제공
18 제12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한여름 밤의 무성영화'	일자 : 8. 19(금)~8. 20(토) 19시 (2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광천 제일고등학교 대강당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350여 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변사 '신술'을 초청하여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무료 상영)
19 우리문화 알아보기 '서산문화탐방'	일자 : 8. 22(월) 9시 장소 : 서산보원사지, 서산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 순교지 대상 : 갈산초등학교 참석인원 : 40여 명	벽지 초등학교 중심으로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20 독도 자료 사진전시회	일자 : 8. 23(화)~9. 6(화) 15일간 장소 : 홍성역,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800여 명	독도관련 자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독도사랑과 안보의식 함양
21 홍성문화원·홍성역 - 상호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공동협약 조인식	일자 : 9.8(목) 14시 장소 : 홍성역 역무실 대상 : 홍성문화원 및 홍성역 직원 참석인원 : 10여 명	홍성문화원과 홍성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봉사 및 대외교류를 촉진하고자 파트너십 공동 협약 체결
22 제7회 홍성내포문화축제	일자 : 9. 23(금)~9. 25(일) 3일간 장소 : 홍주성 일원 대상 : 지역주민 및 축제 관람객 주최 : 홍성내포문화축제추진위원회 참석인원 : 15만여 명	"내포의 위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과 우리나라의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사를 주제로 축제 개최
23 제16회 만해제 '만해 추모다례'	일자 : 9.24(토) 11시 장소 : 만해생가지 대상 :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참석인원 : 100여 명	만해제를 통하여 만해 한용운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24 제35회 성류문화제 - 박·짚풀공예 전시 및 체험활동 참가	일자 : 10.1(토)~10.3(월) 3일간 장소 : 경북 울진엑스포공원 행사장 대상 : 축제 관람객 주최 : 울진문화원 주관 : 홍성문화원 참석인원 : 100여 명	제35회 성류문화제 행사 체험부스에 초청되어 박·짚풀 공예 전시, 판매 및 체험활동 제공

홍성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25 홍성문화원 특별기획전 '제38회 충남서예가협회전'	일자 : 10. 8(토)~10. 12(수) 5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400여 명	홍성문화원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충남서예가협회의 다양한 서예작품 전시
26 전통관례 재현 (전통성년식)	일자 : 10.13(목) 14시 장소 : 구항면 거북이마을 구산사 대상 : 서울 양정고등학교생 참석인원 : 100여 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로써 전통복식과 방법으로 성년식 재현.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감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
27 홍성문화원 특별기획전 '조선례 궁중매듭 개인전'	일자 : 10. 21(금)~10. 27(목) 7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600여 명	홍성문화원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조선례 선생의 다양한 궁중매듭작품 전시
28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심사	일자 : 11. 10(목) 11시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5명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에 접수된 200여점의 사진에 대해서 3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9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시상식	일자 : 11. 11(금) 15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원장실 대상 : 수상자 참석인원 : 10여 명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금 및 상장 수여(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입선 5명)
30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민속공예 교실 작품전시회'	일자 : 11. 16(수)~11. 18(금) 3일간 장소 :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500여 명	조롱박과 짚풀공예품을 전시
31 제4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일자 : 11. 23(수)~12. 2(금) 10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참석인원 : 800여 명	제2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50여 점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함심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32 2011 향토사대중화 사업 '전운상 장군과 해골선 이야기 발표전시회'	일자 : 12. 7(수)~12. 9(금) 3일간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500여 명	전운상 장군과 해골선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과정과 인형, 배경그림 전시

홍성문화원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33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화요상설 공연 '직장인밴드 연합 공연'	일자 : 12.17(토)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200여 명	홍성문화원 문화예술공연팀 직장인밴드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 실시. 푸르미, 오서산밴드, 달구지밴드, 온새미로밴드 등의 다양한 공연 제공
34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일자 : 매주 목요일 19시 장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대상 : 지역주민 참석인원 : 평균 100여 명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35 문화학교 강좌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지역주민 강좌수 : 11개 참석인원 : 매회 각 20여 명	한글서예교실, 도예교실, 국선도교실, 요가교실, 풍수지리교실, 색소폰교실, 시조교실, 노래교실, 포크아트교실, 서양화교실, 한문서예전각교실 운영.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
36 음악감상실 및 향토도서관 운영	일자 : 연중 운영 장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감상실, 향토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위한 공간 제공. 문화원 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
37 「홍성문화」169호, 170호 발간	발행일 : 연중 2회 (6월, 12월) 발행부수 : 각 1,000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다양한 문화정보와 소식을 제공
38 「홍주읍성 주변의 이야기」발간	발행일 : 12월 발행부수 : 500부	홍주성과 조양문, 홍주아문, 안회당 등의 문화재 소개와 주변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음
39 「월산과 용봉산의 슬바람길 이야기」발간	발행일 : 12월 발행부수 : 500부	홍성의 명산 월산과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용봉산을 주변경관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음

홍성문화원



1 문화학교 강좌(도예교실)
2 음악감상실

충청남도 문화원 홈페이지 안내

충남사이버문화원 <http://www.cult21.or.kr>

공주문화원 <http://gongju.cult21.or.kr>

금산문화원 <http://geumsan.cult21.or.kr>

논산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당진문화원 <http://dangjin.cult21.or.kr>

대천문화원 <http://daecheon.cult21.or.kr>

부여문화원 <http://buyeo.cult21.or.kr>

서산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서천문화원 <http://seocheon.cult21.or.kr>

성환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예산문화원 <http://yesan.cult21.or.kr>

온양문화원 <http://onyang.cult21.or.kr>

연기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천안시동남구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청양문화원 <http://cheongyang.cult21.or.kr>

태안문화원 <http://taean.cult21.or.kr>

홍성문화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 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2011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충남도지회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67. 2. 20		지회장 이준호	김영철	최운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동1길 66(반죽동)	54. 12. 14	650	나태주	현대수	김민영 양문순	T.852-9005 F.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2. 3	364	김호택	안용산	전병만 석현숙	T.754-2724 F.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시민로 270	64. 12. 30	20	류제협	이준창	전현희 박슬기	T.732-2395 730-4632 F.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읍내동 남산공원길 151-16	58. 4. 5	341	정정희	정제상	오미형 이필형 김명희	T.354-2367 357-2367 F.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임성빈	이미영 박혜숙	T.934-3061 F.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김민영 양문순	T.835-3318 F.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57. 6. 15	570	이준호	김영철	최운경 강현숙 이용배	T.669-5050 F.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백혜승	박종훈	최신희	T.953-0123 F.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T.581-2101 F.582-1725
천안시동남구 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251	김준기	곽순일	김희영 엄소연	T.564-1022 553-1032 F.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55. 10. 15	344	김시운	박세진	김상희	T.333-2331 335-2441 F.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남산로 28	57. 3. 20	298	이만우	박순동	허미화 김운성 이명숙	T.545-2222 F.542-4444
연기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문화로 17	64. 10. 14	603	임영이	길미숙	이원재 민선혜 곽희임 이진세	T.865-2411 865-2412 F.864-0870
천안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76-14	54. 7. 10		현인숙 (직무대행)		장희중	T.562-9611 F.554-8860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55. 4. 17	286	임효식	이병운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T.943-4774 F.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산1길 85	90. 5. 5	241	김한국	정지수	김유미 최사미 박경미	T.674-2192 674-1192 F.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65. 1. 26	605	전용택	전용식	강청식 이은주 정선영 손형진 김선웅	T.632-3613 632-3612 F.633-1199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15

발행일 | 2011. 12

발행인 | 이준호

기획 | 윤준웅, 전용택

편집인 | 김영철, 강현숙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충남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Tel. 041)669-5050 Fax. 041)669-4567

* 충남문화 제15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